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면적	357,580 km ²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2018 기준)
수도	베를린(Berlin)
인구	82,793,800 명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2018 기준)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어	독일어
종교	카톨릭(28.6%), 개신교(26.6%), 이슬람(5.2%), 무교 및 기타(39.6%)
기후	온대성
국가원수	대통령 :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수상 :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883-11-26 (자료원 : 독일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1883-11-26	고종 20년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 우호, 항해 조약	
민첼훈 공사, 신임장 제정	1901-08-31	민첼훈 주독 전권 공사가 처음으로 부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3국 겸임	
외교관계 재개	1955-12-01	1949년 11월 동독과 북한 간, 1955년 12월 서독과 남한 간 외교관계 수립	
주독 대사관 설치	1958-08-01	1958년 8월 1일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1-12-13	상공부장관 정내혁(丁來赫)이 독일을 방문, 한국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 1억 5000만 마르크의 장기 재정차관 수령	
한독 투자보장 협정	1964-02-04	국가 간 투자를 촉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에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으로 현재 한국은 독일을 비롯해 총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독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64-12-07	한국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유럽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과 독일 에르하르트 수상 간 양국 정상 회담에서 한독 양국 간에 우호와 협조를 증진시키고, 국토가 분단된 공동 운명체로서의 유대의식을 재확인,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해 동일보조를 취한다는 데 합의, 1억 5,900만 마르크 규모의 차관을 공여받음	
한독 무역협정 서명	1965-04-08	양국 간의 교역을 위한 국제법상의 기초 마련, 양국은 최혜국 대우와 최소한 1년에 1회 현실적인 경제문제를 논의할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66-09-28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모든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근거로 작용, 독일과의 기술협력은 이 협정을 근거로 독일이 기술원조를 하는 형태로 추진됨.	1967-02-13 발효
한독 문화 협정	1970-05-16	1970년 5월 독일의 외무장관 쉘이 한국을 방문, 한독문화협정과 부산직업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	
한독 사증면제 협정	1972-11-17	독일로의 무비자 입국 및 90일 간의 체류 가능	
한독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1978-05-04 발효)	1976-12-14	양국의 합의 하에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체결	1978-05-04 협정 발효
한독 정부간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82-09-22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기존우호 관계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업자 정신에 따른 재정협력을 통한 우호 관계 확대강화	
한독 과학기술협력 협정	1986-04-11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기관 간 공동연구사업, 과학기술자 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대등한 호혜협력 관계로 전환	

한독 원자력협력 협정	1986-04-11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한독 항공운수 협정	1998-07-19	국제 민간 항공운수에 대한 양자 간 항공협정 체결, 한-독 양국 정부 간 항공노선 확대, 항공 운수 확대 합의	
한독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	2002-10-31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과 소득원천지국(투자유치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 1976년 체결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이후 양국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협정 체결, 구 협정 대체	
한독 사회보장 협정 발효	2003-01-01	현지 자회사 및 계열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 등 주요 쟁점 사항 해소, 독일 장기체류자가 귀국할 경우 한독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의 합산을 통해 양국 연금을 지급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 각서	2005-01-01	독일 장기체류 비자 취득 절차 대폭 간소화 등 선진국에 준하는 최혜국 대우, 상호주의에 따라 독일 국민에게도 동일한 조치 적용	

<자료원 : 독일 외무부, 한국 외교부,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주한독일대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학진흥사업 성과 포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위키피디아>

한국교민 수

40,170 명 (자료원 : 한국 외교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2017년 7월 5일 한-독 정상회담 개최 :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공식 방문했는데, 이 회의 참석을 계기로 7월 5~6일 한-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독일 공식방문 일정 기간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

을 갖고 한-독 양국 우호 관계 발전방안,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 자유무역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공조 기반을 확충하였다. 이번 독일 방문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에 이은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와 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한-독 양국 간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8년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방한 및 한독 정상회담 개최 : 2018년 2.7~11일 독일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은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룬 국가로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중요한 파트너이자 앞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독일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친환경에너지, 원전해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하였으며, 방한 기간 중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 2018년 10.19일 한독 정상회담 개최 : 2018년 10.19일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 한독정상 회담을 갖고,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우호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더 나아가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육성 등 공동의 관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독일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제

○ 제4차 한독 통일경제정책 세미나 개최 : 2017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제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2014년 기재부와 독일 연방 재무부는 독일의 통일 경제정책 경험 공유를 위해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올해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 대한 지역 경제 개발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회를 가졌다.

○ 2018년 9월 19일 제31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 양국 관계부처 관계관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를린에서는 양국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제조업,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 간 유사점에 기반해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을 지속 수행하는 데 합의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증진하고 스타트업(새싹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의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

○ 하이델베르크 페스티벌에 주빈국으로 참가 : 지난 2018년 4월 27~29일 독일에서 개최된 하이델베르크 페스티벌(Heidelberger Stueckemarkt)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주한 독일문화원과 함께 2018년 '한독 문화예술 공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주간 행사를 지원하였다. 이 축제는 연극 중심의 문화예술축제로 독일과 해외의 공연예술과 희곡, 타 문화의 미학을 알리고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의 현대 연극과 공연, 전시 등을 유럽 시장에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 2018년 7월 6일 독일 튀빙엔 대학교 한국학과 단독 학과 독립 및 한국학 연구센터 개원 : 1964년 '동아시아 철학세미나'의 한 부분으로 시작된 독일 튀빙엔 대학교 한국학과는 1979년 아이케마이어(Dieter Eikemeier) 교수가 부임하면서 정규학과로 설치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학사과정, 2014년부터는 석사과정이 도입되었고 교수진이 확대되며 현재 340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올해 개원하게 된 한국학 연구센터는 한국학과와 더불어 유럽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지로서 향후 독일과 유럽의 한국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7차 한국영화제 개최 :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서는 한국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2018년 10월 26~28일 개최된 7차 한국영화제에서는 총 19편의 한국 영화가 소개됐고, K-Pop 댄스 콘서트와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이 행사는 독일 내 현지 한국 교포와 한류 팬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중요한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 K-Pop 콘서트 개최 :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양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국 방탄소년단(BTS) 공연에는 1일 기준 17,000여 명의 한류팬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독일 뉴스에서도 팬들의 반응을 '센세이션'으로 보도하였으며,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독일 내 K-Pop 붐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2.18	1.74	2.24	2.16	1.43
명목GDP (십억\$)	3,904.92	3,383.09	3,496.61	3,700.61	4,029.14
1인당 GDP (PPP, \$)	46,889.88	47,679.32	48,844.16	50,803.55	52,896.61
정부부채 (% of GDP)	74.59	70.9	67.9	63.85	59.77
물가상승률 (%)	0.77	0.14	0.39	1.7	1.81
실업률 (%)	5.01	4.63	4.15	3.75	3.47
수출액 (백만\$)	1,494,232.62	1,326,205.54	1,334,355.39	1,447,992.34	1,560,982.9
수입액 (백만\$)	1,207,208.02	1,051,131.92	1,055,326.07	1,162,751.05	1,285,441.7
무역수지 (백만\$)	287,024.6	275,073.62	279,029.32	285,241.29	275,541.2
외환 보유고 (백만\$)	67,783.23	63,778.92	64,692.01	64,763.36	64,446.84
이자율 (%)	-	-	-	-	-
환율 (자국통화)	-	-	-	-	-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독일은 2014년 중반 이후 ECB의 역대 최저금리(0.0%)와 양적 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저금리, 저유로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와 영국의 브렉시트 가결 결정에 따른 시장 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16년 사상 최대의 수출입과 2,529억 유로에 이르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7년 독일은 전년도 2.0%에 이어 1.9%의 민간소비 증가율을 토대로 난민 유입에 따른 부정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직 및 고용 수요 동반 상승효과로 지속적으로 최저 실업률을 경신하며, 2.2%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8년에도 독일은 유로 지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ECB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상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 간 무역분쟁이 아직 최종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화되고,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와 브렉시트 등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며, 수출 중심인 독일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18년 2분기 이래 수출 및 경제성장률이 각각 전 분기 대비 0.7%와 0.5% 성장에 그치며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안정적인 소비시장 및 기업의 고용수요 증가에 힘입어 10월 실업률이 4.9%(전월대비 -0.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경제 전망

독일 경제는 여전히 내수 안정과 고용 호조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과 이탈리아 재정확대 논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가 상승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대외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물론 지난 2년간 수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배출가스 시험절차(WLTP) 도입에 따른 완성차 기업의 신규 차량 인증 지연 및 2019년부터 일부 도시 내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차 운행금지 관련 소비자 보상 등의 여러 악재가 맞물리면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고전을 겪고 있어 이 역시 지속적으로 산업 경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 세계 경제가 성장모멘텀을 다소 상실하고 있고, 대외경제환경 악화를 이유로 독일 정부는 최근 10월 말 가을전망에서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 전망을 기존의 2.3%와 2.1%에서 각각 1.8%로 하향조정하였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프랑스	133,560,646,147
2	미국	127,770,823,065
3	영국	105,122,552,228
4	중화인민공화국	99,196,126,266
5	네덜란드	96,598,330,434
6	오스트리아	74,084,116,775
7	이탈리아	72,034,070,600
8	폴란드	63,334,289,242
9	스위스	63,015,309,927
10	벨기에	55,773,215,446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26,565,881,780
2	프랑스	113,948,629,917
3	영국	98,712,709,353
4	네덜란드	87,825,910,080
5	중화인민공화국	79,429,908,590
6	오스트리아	64,512,479,327
7	이탈리아	64,311,243,191
8	폴란드	57,846,445,027
9	스위스	55,913,747,300

10	벨기에	45,351,172,874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18,604,735,133
2	프랑스	110,669,303,568
3	영국	94,075,870,670
4	네덜란드	86,835,884,230
5	중화인민공화국	85,350,435,973
6	이탈리아	67,230,316,461
7	오스트리아	65,391,038,320
8	폴란드	58,851,883,667
9	스위스	55,337,646,879
10	벨기에	45,770,875,605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26,366,893,483
2	프랑스	118,932,072,069
3	중화인민공화국	97,474,475,592
4	영국	95,827,735,055
5	네덜란드	89,749,977,652
6	이탈리아	73,528,552,333
7	오스트리아	69,853,176,898
8	폴란드	66,402,711,968
9	스위스	62,306,449,381
10	벨기에	49,730,528,965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네덜란드	116,719,333,309
2	중화인민공화국	107,593,170,443
3	프랑스	88,656,051,178
4	미국	66,753,018,185
5	이탈리아	64,470,469,619
6	스위스	53,726,148,742
7	폴란드	52,726,950,512
8	벨기에	52,490,302,988
9	러시아	51,248,769,304
10	영국	51,158,697,462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03,348,241,759
2	네덜란드	97,476,691,937
3	프랑스	74,158,393,518
4	미국	68,423,395,038
5	이탈리아	54,348,280,638
6	폴란드	49,594,142,488
7	스위스	47,827,929,254
8	체코	43,476,874,052
9	영국	42,548,939,344
10	오스트리아	41,196,921,514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05,289,752,555
2	네덜란드	92,488,677,850
3	프랑스	72,916,931,157
4	미국	65,815,686,911

5	이탈리아	57,288,674,810
6	폴란드	51,481,975,552
7	스위스	49,643,685,530
8	체코	46,918,962,822
9	오스트리아	42,502,366,333
10	벨기에	41,913,142,45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16,477,747,099
2	네덜란드	94,399,030,569
3	프랑스	73,056,035,998
4	미국	71,755,577,410
5	이탈리아	62,372,465,650
6	폴란드	56,962,247,178
7	스위스	52,474,188,756
8	체코	51,497,830,366
9	오스트리아	45,271,522,698
10	벨기에	44,624,549,919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2,107,072,915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것	55,111,322,795
3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2,500cc시 이하인 것	50,154,539,623
4	300490	기타	39,609,973,069

5	880240	자중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33,035,950,295
6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3,651,350,933
7	300210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570,187,758
8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4,576,536,677
9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4,260,720,717
10	271019	기타	11,925,818,706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4,772,359,350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50,077,282,254
3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45,492,236,047
4	300490	기타	36,027,279,141
5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33,377,311,371
6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20,821,239,554
7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0,608,978,893
8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4,101,122,982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12,863,789,425
10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2,506,452,326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5,745,419,895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56,842,064,279
3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45,646,385,406

4	300490	기타	37,467,192,583
5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33,792,523,782
6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21,675,275,127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14,145,185,863
8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3,302,895,318
9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2,706,700,538
10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2,644,409,308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61,602,402,888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7,980,801,028
3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45,537,493,755
4	300490	기타	42,334,100,124
5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29,551,213,036
6	300215	-	17,464,406,192
7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5,138,907,472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12,607,800,539
9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1,687,002,239
10	870829	기타	11,220,240,252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65,738,968,811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2,985,820,232

3	271121	천연가스	35,900,621,146
4	300490	기타	22,726,077,609
5	271019	기타	22,679,277,451
6	880240	자중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의 항공기	19,319,678,782
7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6,870,981,158
8	300210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6,635,980,912
9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483,353,737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0,377,537,044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8,595,755,667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6,470,380,054
3	271121	천연가스	31,324,697,375
4	300490	기타	21,181,459,188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6,567,057,839
6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6,367,955,521
7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16,289,064,787
8	271019	기타	14,110,264,753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543,758,598
10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10,609,193,291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0,810,538,08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8,718,516,656
3	300490	기타	22,471,666,285
4	271121	천연가스	22,456,507,481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8,093,097,987
6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17,084,308,122
7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3,483,259,468
8	271019	기타	12,024,185,741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883,665,271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0,877,064,369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3,547,674,310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6,159,970,643
3	271121	천연가스	23,037,129,994
4	300490	기타	22,630,111,483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9,457,226,755
6	271019	기타	13,970,889,045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3,017,438,389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941,761,091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11,681,005,583
10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10,990,695,628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7,571	21,299	-13,728
2015	6,220	20,957	-14,737
2016	6,443	18,917	-12,474
2017	8,484	19,749	-11,265
2018	7,872	17,369	-9,49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587	4,382	-2,796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861	409	452
3	8352	축전지	827	20	807
4	7420	자동차부품	456	755	-300
5	2262	의약품	205	1,007	-803
6	2140	합성수지	284	341	-57
7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157	165	-9
8	8121	무선전화기	186	0	185
9	8411	발전기	75	37	38
10	3203	타이어	139	78	6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11	승용차	1,168	4,387	-3,219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938	346	592
3	8352	축전지	698	14	684
4	7420	자동차부품	452	688	-236
5	2262	의약품	402	796	-394
6	2140	합성수지	269	320	-51
7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206	116	90
8	8121	무선전화기	194	0	194
9	8411	발전기	168	33	135
10	3203	타이어	146	72	7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587	4,382	-2,796
2	2262	의약품	205	1,007	-803
3	7420	자동차부품	456	755	-300
4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63	587	-525
5	8151	계측기	50	439	-389
6	7152	광학기기부품	28	421	-393
7	7112	펌프	53	430	-378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861	409	452
9	2140	합성수지	284	341	-57
10	0221	가축육류	0	386	-38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168	4,387	-3,219
2	2262	의약품	402	796	-394
3	7420	자동차부품	452	688	-236
4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66	532	-466

5	8151	계측기	41	370	-329
6	7152	광학기기부품	35	367	-332
7	7112	펌프	45	357	-312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938	346	592
9	2140	합성수지	269	320	-51
10	0221	가축육류	0	303	-30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p>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p>
--	---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7.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발효 전 망)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2018.12월 양측 의회 비준 완 료 2019.2.1 발효 전망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비준 진행 중(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발효 전망)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01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 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 잠비크(2018.2.4))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 operation Agreement) 협정 을 대체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A(Agreement)	페로제도	1996-12-06	1997-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3.1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4월 부로 보류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CU(Customs Union)	산마리노	1991-12-16	2002-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8.1), 페루(2013.3.1), 에콰도르(2017.1.1)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8.1)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1) 과테말라(2013.12.1)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6.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3월,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월, EU- ASEAN 개별회 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 2012년 4월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 2014.4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중, 직전협상 : 2018.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중, 직전협상 : 2017.2월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중, 직전협상 : 2016.12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 2013년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 (MERCOSUR)	협상중, 직전협상 : 2018.7월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4.2. 무역부분 업그레이드 협정 원칙적합의(Agreement in principle) 도달	기존 협정 발효일 : 2000.10.1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중, 직전 협상: 2018.7월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중, 직전 협상: 2018.7월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중, 협상 개시 : 2013.11월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 2017.2월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무역부분 현대화 추진중 (협상 개시 : 2017.11.16.)	기존 협정 발효일 : 2005.3.1
Update of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 2013.10.12)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기존 협정 발효일 : 1998.3.1

<자료원 : EU 집행위>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73류 일부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03-26
2	4811.90, 4809.90, 4816.90, 4823.90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규제중)	2016-02-18
3	7225.11, 7226.11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4-08-14
4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9-08-12
5	2804.69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우회덤핑)	반덤핑(규제중)	2006-04-20
6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반덤핑(규제중)	2001-06-0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2015년 9월, 유럽의회는 물개 제품에 대한 교역 금지를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을 압도적 표결(찬성 631표, 반대 31표, 기권 33표)로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물개잡이를 금지하고 물개고기에 관련된 제품 수입을 금지했었으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물개잡이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물개잡이만 허용해왔었다. 2014년 6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WTO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2월 물개 관련 제품의 수입교역 금지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물개잡이 역시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만, 원주민의 전통생활 방식에 따른 비상업적 목적의 물개잡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TBT를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

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의 경우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인증, REACH, CPNP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류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용이해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이 가능하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적으로 표시가 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

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http://iuclid.eu>

- 평가: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ECHA는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장품 제품 관련 규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규정적용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 아직까지도 국내 업체들 중에 CPNP에 대해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역외 기업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역내 법적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자가 제품의 책임자가 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제품이 EU 현지 브랜드 또는 역내 유통사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통사가 책임자가 된다. 참고로 지정된 책임자는 제품 시장 출시 전, EU 집행위 사전신고를 비롯해 불량제품 발생 시 시장철수 및 리콜 등 규정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책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역내 책임자(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이 대행업체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면 되는데, 필요서류로는 ISO 인증서 사본, 제품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이 있다.

CPNP 인증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KOTRA 뉴스를 참고할 수 있겠다.

- CPNP 정보 링크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9902&pageViewType=&column=title&search=cpnp&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l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5) e-Mark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써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몰타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서 2의 부록 C에 수정 기재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의 이와 같은 장난감 안전지침 개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EU는 지난 3월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월 4일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신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22일 Cadmium 허용치 조정
 - 2013년 7월 17일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20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TCEP, TCPP, TDCP 함량 제한
 - 2014년 6월 23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이행 제한 - 2015년 6월 30일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신 장난감 안전지침의 개정 공표 내역
 - 2017년 3월 27일 Lead 허용치 조정(EU 이사회, 2017/738)
 - 2017년 5월 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Phenol 제한(EU 이사회, 2017/774)
 - 2017년 5월 2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허용치 조정(EU 집행위, 2017/898)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의 경우,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식품 용기 내 BPA 사용을 금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위험성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은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데, 관련 기업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BPS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표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에 있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EU FTA에 의거해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18년 12월 10일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p>공공누리</p>	 <p>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p> <p>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p>
---	---	--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수입 통관

구비 서류

- 송장(Invoice)
-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수입 통관 절차

- 1단계 :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 2단계 :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 3단계 :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반입한다.

2) 수출 통관

1단계: 통관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수출 면장(Ausfuhrhandelbestaetigung)
 - EC 역내(EX-1): EU 회원국에 수출 시 EX-1 양식 사용
 - EC 역외(T-1): 스위스와 같이 EU 회원국이 아닌 경우 T-1 양식 사용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출 상품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수출품

2단계: 고유번호 발급

-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 받는다.
- 통관시스템으로 함부르크항은 Dakosy사의 ED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ZAPP: Zoll-Ausfuhr im Paperless Port

3단계: 운송

- 수출품을 해상, 항공편 등을 통해 운송

3) 전시 물품 통관

한국과 독일은 전시 통관 관련 협정을 통해,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까르네를 통해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4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

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 <http://cert.korcham.net/html/carnet/carnet01.jsp?menu=1>

- 독일 세관

-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rechtliche-Bestimmung/Zollverfahren/Voruebergehende-Verwendung/Carnet-ATA/carnet-ata_node.html

4) 기타 개인 물품 통관

독일에 거주하는 동안 인터넷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제품을 주문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경우 배로 받는 경우 약 2달이 소요되며, 대부분 함부르크 무역항으로 도착한다.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 약 3~5일이 소요되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포에는 제품 구매 가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 포함돼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 배송 지역 세관에 1차적으로 보관을 하게 된다. 수신자는 세관으로부터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소포를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때 편지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관으로 찾으러 가야 하며, 2주 경과 시 반송이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

- DDP 조건의 경우,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2007년 19%로 인상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독일 부가세 환급 시 별도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환급 관련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환급 기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DAP :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 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독일 베를린 상공회의소(IHK)에서 제공한 인코텀즈 무역 운송 조건 내용에는 DAP와 관련 수입자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Import customs clearance(독일어: Einfuhrverzollung)와 Import taxes(독일어: Einfuhrsteuerung) 같은 관세는 수입자 부담으로 기재돼 있다.

2) 수입 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at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 경제청(BAW, Eschborn 소재)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관리 관청의 선택 기준, 즉 BAW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3에 명기돼 있다). 점검 신고 'EKM' 품목들은 BAW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관 시에 수입 점검 신고(Einfuhrkontrollmeldung)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 승인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 수입 승인(Genehmigung)을 요하는 것: 수입 리스트의 제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된 경우
 - 수입 License(Lizenz)를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4컬럼에 'L'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License(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organe)이 별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 원산지 증명(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5컬럼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또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진술서(Ursprung serklaerung)가 필요하다.

- 수입 목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규제 품목
 - 일반적 규제(3항목):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항목): 은행권, 정부 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 물질, 방사성 물질 등
 -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항목): 폐기물, 연료 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 DDT, 유독성 물질
 -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항목): 식용, 정육 관계(9항목), 계란 및 그 제품(2항목), 기타 식품(3항목), 마약,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코올, 인산 동물(13항목), 식물(5항목)

- 공업 소유권의 보호(3항목):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 협정(1925.3.21) 비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상동 Lisbon 협정(1958.10.31)에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Markengesetz, 94.10.25에 Warenzeichengesetz을 전면 개정)에 저촉되는 경우, 농산물 시장 질서(Marketordnung과 관련) 유지 대상 물품(8항목)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CJ 대한통운(주) 독일법인

주소	Rhonestr. 7, 60528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860 3995
이메일	info@koreaexpress.de
홈페이지	https://www.cjlogistics.com

○ 에이치앤 프렌즈 H and Friends GTL

주소	Cargo City Sued, Geb.641, 6054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959 2129
홈페이지	http://www.hnfriends.com
비고	문의접수: http://www.hnfriends.com/user/action/contactForm.do

◦ 범한 판토스 Pantos Logistics Germany GmbH

주소	Waldecker Str. 6-12, 64546 Moerfelden-Walldorf, Germany
전화번호	+49 (0) 6105 4053 0
이메일	junkyu.lee@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

◦ IMPEX GLS

주소	Am Gruenen Weg 2a, 65451 Kelsterbach, Germany
전화번호	+49 (0) 6107 7576 00
이메일	export.fra@impexgls.de
홈페이지	http://impexgls.com/

◦ 카고킹 Cargoking GmbH

주소	Chilehaus A. Fischerwiete 2, Hamburg, Germany
전화번호	+49 (0) 40 3200 5133
이메일	sesil.kim@cargoking.eu
홈페이지	http://cargoking.eu/

◦ 퀴네앤드나겔 KUEHNE + NAGEL

주소	Grosser Grasbrook 11-13, 20457 Hamburg, Germany
전화번호	+49 (40) 30333 0
이메일	knham.empfang@kuehne-nagel.com
홈페이지	https://de.kuehne-nagel.com/de_de/

◦ 유수로지스틱스 EUSU Logistics B.V. Germany

주소	Fasanenweg 10, 65451 Kelsterbach, Germany
전화번호	+49 (0) 6107 989 8380
이메일	choi.rachell@eusu-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www.eusu-logistics.com/en/index.jsp

o World Asia Logistics, Inc

주소	Suederstrasse 63, 20097 Hamburg, Germany
전화번호	+49 (0) 40 2380 5870
이메일	ham@myworldasia.com
홈페이지	http://www.myworldasia.com/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및 각 업체 홈페이지>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 투자법 부재 : 독일에서 외투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같은 특별한 투자 법규는 존재하지 않음.

- 단, 독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세계 혜택이나 현금 지원, 저리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또한, 구 동독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투자 지원법인 투자인센티브법(Investitionszulagengesetz)이 있으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와 튀링겐주 등 구동독 지역의 투자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대상은 주로 가공업, R&D, 일부 제조 및 서비스업, 숙박업 부문의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의무를 지는 기업이다. 지원방식은 비과세를 통한 지원 및 조세 쿠폰을 통한 지원으로, 지원금은 투자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세무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법은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에 차별을 두지 않아서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법이라고 하기에는 힘들다.

- 최근 독일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은 미래산업인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기반산업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제조업 및 특정 서비스 산업(숙박 및 관광산업 등)과 창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독일 정부의 중점 투자지원 지역은 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지역이나, 메르켈 총리는 2009년 1월 12일 통독 이후 구 동독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했던 구 서독지역의 인프라 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구 서독지역의 인프라 투자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별도 우대제도는 없다.

1)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이하: GRW)

○ GRW 프로그램은 지역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 처음 도입된 연방 차원의 지원프로그램, 주로 구동독 지역 지원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에서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 향후 2020년까지 적용된다. 주 관할기관은 연방 주 정부 산하 투자 지원기관 및 연방주 지원기관이며, 산하 지자체별 투자지원기관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투자 인센티브 세부 내용: 투자인센티브 신청 대상기업은 경제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제조 또는 상공업 및 관광업 분야 기업의 투자 계획 또는 지자체, 지자체연합이다. 기본적으로 별도로 지정된 GA 지원 지역 내 투자계획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36개월 이내 실현이 가능한 프로젝트여야 한다. 농경업과 어업 관련 제품의 가공 및 유통 분야의 경우 지원이 다소 제한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투자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신규 작업장 입지 구축

기타 신규 작업장 설립

기존 작업장 확장(중소기업에 국한)

작업장 활동 분산(단, 새로운 영업활동이 기존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은 경우)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클러스터 경영

- 지원규모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유효 산정비용의 15%, 중기업의 경우 25%, 소기업의 경우 35%이다. 입지 구축의 경우 사용되는 공공 재원을 고려해 최대 허용된 지원 규모 내 지원이 가능하다.

2) 금융지원

○ 정부 및 연방주 차원에서 공공 투자지원은행(예: KfW은행 또는 연방주 차원의 Foerderbank(투자지원은행))을 통한 저리대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각 은행은 상이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EIB) 역시 독일을 포함한 유럽 내 투자자를 위한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 독일 내 해외 투자기업은 이러한 정부차원의 투자지원은행의 대출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이자는 시장 내 평균 수준을 하회하며, 장기 대출의 이점이 있다.

3) Germany Trade & Invest(이하 GTAI, 독일무역투자청)를 통한 투자자 지원

○ GTAI는 2009년 1월 1일 기존의 독일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독일투자진흥기관(Invest in Germany GmbH)과 독일 자국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했던 대외경제 무역기구인 연방수출경제청(BFAI: Bundesagentur fuer Aussenwirtschaft, 이하 BFAI)의 합병으로 창설됐다. 공식기관명은 Gesellschaft fuer Aussenwirtschaft und Standortmarketing mbH(수출경제 및 지역 마케팅 유한회사)이다.

○ 베를린과 본을 주 거점으로 하며, 전 세계 46개국 52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GTAI는 세계 90여 개국에 약 13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해외 상공회의소(AHK: Auslandshandelskammer, Germ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 등과의 밀접한 협력 속에 잠재 투자자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초기부터 지원하는 투자 유치업무 담당하고 있다.

○ 투자 유치업무는 크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원, 투자 입지 자문, 정착 서비스 등으로 분류되는데, 투자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사이트상에서 간단한 기업 정보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s://www.gtai.de/GTAI/Navigation/EN/Meta/Formulare/Contact/contact.html>

○ 독일의 연방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에는 별도 경제 개발 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GTAI를 통해 투자 수요가 접수될 경우, 동 기관이 가장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 연락을 취하면 지자체는 투자자의 요청에 맞는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다. 연방주 지원기관이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외국인 투자 관련, 독일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투자제한 분야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원칙적으로는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 외국 기업 투자 시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1) 독과점

○ 외국 기업이 독일 기업 인수·합병을 희망할 경우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전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독일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 클릭)의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2) 특수업종 : 도박, 환경오염, 국방 등

○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방, 금융, 환경 등 특수분야 투자 시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제한분야는 다음과 같음

- 보험
- 은행
- 부동산 중개
- 국방/보안
- 도박
- 전당포/경매

3) 대외경제법(AWV) 개정을 통한 투자제한

○ 독일 정부는 2008년 각료회의에서 외국자본(EU, EFTA 지역 내 외국자본 제외)의 독일 기업 매입 및 대지분 매입(지분의 25% 이상)에 대해 독일 정부가 공공 안전과 질서(public security and order)가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동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경제법」(Aussenwirtschaftsgesetz)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 EU 및 EFTA 지역 내 기업(자본)의 독일 기업 매입 및 대지분 매입은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정부의 조사는 매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조사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투자자(외국자본)는 상기 기업매입 및 대지분 매입 등 투자에 대해 독일 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투자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자가 독일 정부에 사전에 동 투자가 정부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으며, 독일 정부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해당 정보 없음(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부재)

산업단지

○ Hamburg Aviation

위치	함부르크(Hamburg)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49 (0) 40 227019 477 ○ 홈페이지: www.hamburg-aviation.de

○ EffizientCluster LogistikRuhr

위치	뮐하임(Muelheim)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49 (0) 208 9925 255 ○ 홈페이지: www.effizienzcluster.de

○ Software-Cluster

위치	다름슈타트(Darmstadt)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49 (0) 6151 1625 552 ○ 홈페이지: www.software-cluster.com

○ Cool Silicon

위치	드레스덴(Dresd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49 (0) 351 8925 800 ○ 홈페이지: www.cool-silicon.de

◦ Cluster fuer individualisierte Immunintervention

위치	마인츠(Mainz)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6131 5019 322 ◦ 홈페이지: www.ci-3.de

◦ Solarvalley Mitteldeutschland

위치	에어푸르트(Erfurt)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361 644 1880 ◦ 홈페이지: www.solarvalley.org

◦ Medical Valley EMN

위치	에얼랑엔(Erlang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9131 9167 0 ◦ 홈페이지: www.medical-valley-emn.de

◦ Muenchner Biotech Cluster

위치	뮌헨(Muench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89 89 96 790 ◦ 홈페이지: www.m4.de

◦ M A I Carbon

위치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821 2684 110 ◦ 홈페이지: www.carbon-composites.eu

◦ Eletromobilitaet Sued West

위치	슈투트가르트(Stuttgart)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 711 8923 850 ◦ 홈페이지: www.emobil-sw.de

<자료원 : 독일 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홈페이지(www.clusterplattform.de)>

주요 지역별 여건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 Vorpommern)

- 면적: 23,212km²
- 인구: 161.1만 명
- 주도: 슈베린(Schwerin, www.schwerin.de)
- 공식 웹사이트: www.mecklenburg-vorpommern.de

- 주요 산업: 농업, 기계, 에너지 기술, 식품 및 생명공학, 의료기기, 항공 및 우주 분야 등에 우수기술 보유
- 외국 기업: Sakthi Group(인도)
- 특이사항: 2017년 GDP는 427억 유로로 독일의 총 경제 생산에 1.3% 달성. 가장 인구밀도가 적고 산업이 적은 독일 주 중 하나임.

○ 니더작센(Niedersachsen)

- 면적: 47,614km²
- 인구: 796.3만 명
- 주도: 하노버(Hannover, www.hannover.de)
- 공식 웹사이트: www.niedersachsen.de
- 주요 기관: 연방 물리기술 센터
- 주요 산업: 자동차(폴크스바겐, 콘티넨탈), 철강(잘츠기터), 화학, 식품, 기계, 전시회
- 외국 기업: Solvay(벨기에), Tulip Food(덴마크), Nexans(프랑스), Baker Hughes(미국) 등
- 특이사항: 독일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연방 주이며, 세계박람회인 하노버 전시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 면적: 34,110km²
- 인구: 1,791.2만 명
- 수도: 뒤셀도르프(Duesseldorf, www.duesseldorf.de)
- 공식 웹사이트: www.land.nrw
- 주요 산업: 기계, 자동차(포드, 오펔, 다임러), 전자, 화학(바이어 등), 에너지(EON, 솔라월드), 철강(튀센크룹)
- 외국 기업: Toyota(일본), Ford(미국), UPS(미국), Vodafone(영국), 3M(미국), Citroen(프랑스), Air Liquide(프랑스) 등
- 특이사항: 인구 최고 밀집지역, 독일에서 최대로 인구가 많은 주로, 전통적으로 석탄, 철강산업의 중심지였으며 1960년대 후 사양길에 접어든 후 위기에 빠졌으나 기계, 자동차 산업 등의 발전으로 다시 회복했음.
- 세계 100위 기업 중 4개 기업(EON, 메트로, 도이체 텔레콤, 알디)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본사를 두고 있음.

○ 라인란트-팔츠(Rheinland Pfalz)

- 면적: 19,854km²
- 인구: 407.4만 명
- 수도: 마인츠(Mainz, www.mainz.de)
- 공식 웹사이트: <https://www.rlp.de>
- 주요 산업: 화학/제약(BASF, 비링어잉겔하임), 주류(포도주), 자동차(다임러, 오펔), 식품(비트부르거, 그리손)
- 외국 기업: Novo Nordisk(덴마크), Kimberly-Clark(미국), BorgWarner Turbo Systems(미국) 등
- 특이사항:
 - 중소/중견기업이 많고 GDP 대비 수출이 46%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편임.
 - 2018년 5월 실업률이 4.4%로, 바덴 뷔르템베르크 및 바이에른 연방주 다음으로 낮은 편임.
 - 리슬링 등 화이트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함.

○ 자르란트(Saarland)

- 면적: 2,569km²
- 인구: 99.4만 명
- 주도: 자르브뤼켄(Saarbruecken, www.saarbruecken.de)
- 공식 웹사이트: www.saarland.de
- 주요 산업: 자동차부품, 철강, 세라믹, 컴퓨터공학
- 외국 기업: Terex Cranes(미국), Michelin(프랑스), Amer Sports(핀란드),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 등
- 특이사항:
 - 중소/역사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지배를 번갈아 받았고, 1957년 마지막으로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함.
 - 면적 차원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작은 연방 주이며, 2017년 GDP도 353억 유로로 다른 연방주 대비 낮음.

○ 작센(Sachsen)

- 면적: 18,420km²
- 인구: 408.1만 명
- 주도: 드레스덴(Dresden, www.dresden.de)
- 공식 웹사이트: www.sachsen.de
- 주요 산업: 자동차(폴크스바겐), 기계, 전자, 출판(라이프치히)
- 외국 기업: Dow Chemical(미국), Hitachi Automotive Systems(일본), Transcom (룩셈부르크), Magnetto Automotive(이탈리아)
- 특이사항:
 - 구(舊) 동독지역이면서도 외국투자유치가 활발하고 산업화된 지역임.

- 독일 정부에서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지역을 주로 개발해 튀링겐을 비롯해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주임.
- 구 동독지역 중 가장 인구밀도가 조밀하며, 교통이 발달해 있어 철도역에서 15km 이상 떨어진 마을이 거의 없음.

○ 작센-안할트(Sachsen Anhalt)

- 면적: 20,452km²
- 인구: 222.3만 명
- 주도: 막데부르크(Magdeburg, www.magdeburg.de)
- 공식 웹사이트: www.sachsen-anhalt.de
- 주요 산업: 화학, 기계, 식품, 관광, 생물공학 등
- 외국 기업: Solvay Chemicals(벨기에), Polytec Plastics(호주), Roba Corrugated(스위스), Coil Aluminium(벨기에)
- 특이사항:
 - 동독 시절, 화학기업들이 90년 이후 파산하면서 실업률이 21%까지 증가했으나, 2005년부터 경제 발전을 통해 2015년에 10.2%로 감소함.
 - 그러나 아직도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 하나이며, 1990년대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작센 안할트 주의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동 주의 인구가 30%까지 감소될 가능성도 있음.

○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 Holstein)

- 면적: 15,800km²
- 인구: 289만 명
- 주도: 킬(Kiel, www.kiel.de)
- 공식 웹사이트 :www.schleswig-holstein.de
- 주요 산업: 관광업, 농업, 해운
- 외국 기업: Sysmex Corporation(일본), Vishay(미국)
- 특이사항: 구 서독지역에서 가장 경제가 약한 주 중 하나로, 함부르크 인근을 제외한 분야에는 산업이 적으며 농업, 관광업이 발달되어 있음.

○ 튀링겐 (Thuringen)

- 면적: 16,173km²
- 인구: 215.1만 명
- 주도: 에어푸르트 (Erfurt, www.erfurt.de)
- 공식 웹사이트: www.thuringen.de
- 투자입지 정보: <http://www.invest-in-thuringia.de/en>
- 주요 산업: 정밀기기(카를 차이스, 옌옵틱), 자동차부품(보쉬), 식품, 전기/전자, 유리
- 비고: 구 동독지역 중 가장 발달한 주로 실업률 8%로 낮은 편이나, 임금수준이 1시간당 15.02유로(2024년)로 독일에서 낮은 편임.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uerttemberg)

- 면적: 35,751km²
- 인구: 1,102.3만 명
- 주도: 슈투트가르트(Stuttgart, www.stuttgart.de)
- 주요 기관: 연방 대법원과 연방 헌법재판소(칼스루에 소재)
- 주요 산업: 자동차(다임러, 포르세, 보쉬), 기계(트롬프, 페스토, 보이트 등) 정유 산업(Karlsruhe), 소프트웨어 (SAP) 등
- 비고: 독일 연방주 중 최강의 경제 수준, GDP 중 4.8%를 R&D 분야에 투입하며 유럽에서 혁신이 가장 많은 주로 알려져 있음 / 핵 연구센터(칼스루에), 암연구센터(하이델베르크) 및 9개의 종합대학 소재

○ 바이에른(Bayern)

- 면적: 70,550km²
- 인구: 1,297.7만 명
- 주도: 뮌헨(Muenchen, www.muenchen.de)
- 주요 산업: 자동차(BMW, 아우디, MAN 등), I(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인피니온 등), 국방산(EADS, 크라우스-마파이 등), 관광(알프스의 산악지대, 구릉 지대, 호수, 독일 최초의 국립공원)
- 비고: 외국 기업 Adobe(미국), Microsoft(미국), Johnson Controls(미국), Faurecia(프랑스), Fujitsu(일본) 등 진출 / 독일 최대 면적,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다수,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Oktoberfest 개최(뮌헨)

○ 베를린(Berlin)

- 면적: 892km²
- 인구: 361.3 만 명
- 주도: 베를린(Berlin, www.berlin.de)
- 주요 기관: 연방하원 및 정부

- 주요 산업: 서비스 산업인 창의/문화 산업, 관광, 미디어/정보통신 기술, 운송 시스템 등(베를린 GDP의 80%), 약 322개의 제조기업은 2014년에 223억 1,33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

- 비고: 외국 기업 Vattenfall(스웨덴), McDonald(미국), Ikea(스웨덴), Philip Morris(미국) 등 진출 /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 중 하나인 베를린에는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매우 잘 형성돼 있으며, 2015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투두 리스트(To do List)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독일 쉐스 분더킨더(6Wunderkinder)를 인수함으로써 화제가 됨.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 면적: 29,484km²
- 인구: 250.4만 명
- 주도: 포츠담(Potsdam, www.potsdam.de)
- 공식 웹사이트: www.brandenburg.de
- 주요 산업: 농업, 강철, 풍력, 바이오 등
- 비고: 과거 농업 및 철강 등을 주로 생산했으나, 최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모. 포츠담 지역에는 바이오 기업 160개가 소재하고 있어 유럽 최대 바이오클러스터 중 하나임.

○ 브레멘(Bremen)

- 면적: 419km²
- 인구: 68.1만 명
- 주도: 브레멘(Bremen, www.bremen.de)
- 주요 산업: 해상교통, 항공/우주, 자동차, 식품, 전기, 철강 등
- 외국 기업 : Mondelez International(미국), Arcelor Mittal(룩셈부르크), Univeg (벨기에) 등
- 특이사항: 2개의 도시(Bremen, Bremerhaven)가 하나의 연방주 구성, 면적과 인구면에서 독일 최소 지역 GDP의 1/3이 해상운송과 대외교역으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물류가 발달.

○ 함부르크(Hamburg)

- 면적: 755km²
- 인구: 183.1만 명
- 주도: 함부르크(Hamburg)
- 웹사이트: www.hamburg.de
- 주요 산업: 조선, 정유, 수입가공무역, 항공/우주, 소비재 및 관광, 재생에너지, 생명과학 등 서비스 산업
- 외국 기업: Airbus(프랑스), Philips Medical, Shell(네덜란드), BP(네덜란드/영국),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중국), Cosco(중국) 등
- 특이사항: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함부르크 항은 세계 20위의 컨테이너 항구 보유. 2002년부터 외국 기업 유치전략을 펼쳐 5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소재해 있음.

○ 헤센(Hessen)

- 면적: 21,115km²
- 인구: 624.3만 명
- 주도: 비스바덴(Wiesbaden, www.wiesbaden.de)
- 공식 웹사이트: www.hessen.de
- 주요 기관 : 유럽중앙은행, 독일중앙은행
- 주요 산업: 금융, 화학/제약, 항공/철도, 자동차, 전기기기, 기계 등
- 외국 기업: Sanofi(프랑스), Procter&Gamble(미국), Goodyear(미국), Hewlett-Packard(미국), Clariant(스위스), BNP Paribas(프랑스)
- 특이사항
 - 고전주의 문학의 거성 괴테의 탄생지(프랑크푸르트) 소재
 -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중앙은행이 위치하고 있고, 독일 최대 증권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런던과 함께 유럽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임.
 - 유럽 항공화물 1위, 여객 3위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소재
 - 삼성그룹, 현대그룹을 포함한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유럽본부를 설립해 진출해 있으며, 약 1만 명 이상 한국 교민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15,573.18	4,863.17	33,276.35	16,982.4	34,726.28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42,270.61	99,584.23	108,177.34	51,460.36	82,336.48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113	37	94,869	123	86,820
2015	139	46	434,545	133	223,800
2016	140	38	240,892	122	141,159
2017	171	51	331,031	181	203,650
2018	81	25	99,233	92	86,01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56	18	56,771	66	49,030
도매 및 소매업	31	11	25,236	32	25,119
운수 및 창고업	1	0	408	1	408
숙박 및 음식점업	1	1	387	2	158
정보통신업	3	3	801	3	802
금융 및 보험업	1	0	10,589	1	10,6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3	486	16	5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1	191	2	15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1	1,095	2	1,079
제조업	71	19	171,380	70	154,503
도매 및 소매업	26	13	12,886	27	12,746
운수 및 창고업	1	0	213	1	213
숙박 및 음식점업	0	0	0	1	182
정보통신업	11	5	718	8	695
금융 및 보험업	4	1	49,289	4	48,579
부동산업	1	1	198,000	1	4,9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2	813	14	70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3	124	4	1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27	1	2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1	13	53,830	35	46,453
도매 및 소매업	31	13	49,333	31	49,223
운수 및 창고업	2	2	377	2	377
숙박 및 음식점업	3	3	226	3	226
정보통신업	9	6	12,411	8	1,128
금융 및 보험업	4	0	123,175	4	42,6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0	945	14	86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2	1	595	25	205
N/A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6	1	15,865	11	9,089
제조업	68	19	77,458	76	66,3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5	1	5
도매 및 소매업	31	17	13,515	30	12,066
운수 및 창고업	1	1	455	1	467
정보통신업	9	3	1,956	14	12,930
금융 및 보험업	9	1	218,277	11	100,107
부동산업	4	1	557	4	5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2	847	13	84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7	5	2,096	20	1,264
N/A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2,510	4	4,640
제조업	31	7	60,375	32	52,813
도매 및 소매업	16	8	7,459	17	7,357
운수 및 창고업	1	1	30	1	30
숙박 및 음식점업	1	1	334	1	334
정보통신업	9	1	2,990	10	3,108
금융 및 보험업	1	1	10,523	3	5,531
부동산업	1	1	8,594	1	6,1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1	1,190	5	1,18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	3	4,705	16	4,371
교육 서비스업	2	1	523	2	49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Samsung Electronics GmbH

진출년도	198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Hyundai Motor Europe GmbH

진출년도	200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자동차 및 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Kia Motors Europe GmbH

진출년도	200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자동차 및 부품
모기업명	기아자동차그룹

◦ SK Hynix Deutschland GmbH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반도체
모기업명	SK 하이닉스

○ Nexen Tire Europe GmbH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

○ Il Heung Europe GmbH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일흥공업

○ Dongbu Daewoo Electronics Corporation Frankfurt Representative Office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지사
업종	가전제품
모기업명	동부대우전자

○ Lotte Fine Chemical Europe GmbH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화학제품
모기업명	롯데정밀화학

○ BIXOLON Europe GmbH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프린터 기기
모기업명	빅솔론

○ Hyundai Capital Germany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모기업명	현대캐피탈

○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시설관리, 건설
모기업명	현대엔지니어링

○ OnNet Europe GmbH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컴퓨터 게임
모기업명	온네트

○ Hotel Lotte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지점
업종	숙박업
모기업명	롯데그룹

○ Lock and Lock GmbH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주방생활용품
모기업명	락앤락

○ Kumho Tire Co., Inc., European Technical Centre

진출년도	2011
------	------

진출형태	연구소
업종	타이어 연구 및 개발
모기업명	금호타이어

◦ INNO Instrument Europe GmbH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퓨전스프라이서, 클리버, 일렉트로블레이드
모기업명	이노인스트루먼트

◦ Daewon Kang Up Frankfurt R and D Support Office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연구소
업종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대원강업

◦ Nexen Tire European Technology Center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연구소
업종	타이어 연구개발
모기업명	넥센타이어

◦ ICT Europe GmbH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임플란트
모기업명	덴티움

◦ ATNS Europe GmbH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SAP컨설팅

모기업명	에이티앤에스
------	--------

◦ KB AutoTEch Co., Ltd. Frankfurt Representative Office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차량 공조시스템
모기업명	갑을오토텍

◦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Rep Office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해외 사업장 안전진단, 해외인증지원
모기업명	한국 가스안전공사

◦ Samsung SDI Europe GmbH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모기업명	삼성 SDI

◦ Ceragem Europe GmbH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의료기기
모기업명	세라젬

◦ Humax Automotive Europe GmbH

진출년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모기업명	휴맥스오토모티브

○ GIT Europe GmbH

진출년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차량진단스케너, GDS, 지디에스, 시뮬레이터엔진 등 자동차 진단기
모기업명	지아이티

○ INTERMARU Co. Ltd., Branch Office Germany

진출년도	201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극세사, 클리너, 홈클리너
모기업명	인터마루인더스트리

○ KPF Europe Rep Office

진출년도	201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자동차 단조제품
모기업명	케이피에프

○ KDK Automotive GmbH

진출년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인수)
업종	자동차내부부품
모기업명	갑을상사그룹

○ ACI Worldwide Express GmbH

진출년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물류
모기업명	에이씨아이 월드와이드

○ Doosa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건설중장비
모기업명	두산중공업

◦ WIZNET Europe GmbH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모기업명	위즈네트

◦ INZI Controls Co. Ltd. Germany Branch Office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지사
업종	자동차 센서
모기업명	인지컨트롤스

◦ Hyundai Sungwoo Casting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PD Sports Germany GmbH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디지털다트, 터치스크린게임, 다트보드, 플라이트
모기업명	홍인터내셔널

◦ Xiom Europe GmbH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탁구공, 탁구라켓, 탁구러버
모기업명	엑시옴

◦ InnoVision Deutschland GmbH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소프트 콘택트렌즈
모기업명	이노비전

◦ GigaTera EU GmbH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LED 조명
모기업명	케이엠더블유

◦ Iksung Europe GmbH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자동차용 차음제,흡음제
모기업명	익성

◦ Biodent Europa GmbH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치과용 의료기기
모기업명	디에스엠

◦ Introsa GmbH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CCTV 감시 시스템
모기업명	(주)우택

◦ Feelux Lighting GmbH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조명
모기업명	필룩스

◦ Unitech Deutschland GmbH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산업용 접착제
모기업명	유니텍

◦ Hanwha L and C Europe GmbH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건자재
모기업명	한화 L and C

◦ BBS GmbH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인수)
업종	자동차 휠
모기업명	나이스그룹

◦ Carlsson Fahrzeugtechnik GmbH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인수)
업종	자동차 튜닝
모기업명	삼보모터스

◦ SoluM Europe GmbH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파워모듈, 통신모듈, ESL, IoT 등 전자부품
모기업명	솔루엠

◦ Vieworks EU GmbH

진출년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의료기기
모기업명	뷰웍스

◦ Meta Biomed Europe GmbH

진출년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의료기기
모기업명	메타바이오메트

◦ Blackyak Co. Ltd.

진출년도	2016
진출형태	지사
업종	아웃도어
모기업명	블랙야크

◦ All of Nature GmbH

진출년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유통
모기업명	올오브네이처

◦ Hyundai, Marine and Fire Insurance Co.

진출년도	2016
진출형태	지사

업종	보험
모기업명	현대해상

◦ Sena Europe GmbH

진출년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유선 통신 장비
모기업명	세나테크놀로지

◦ TmaxSoft Deutschland GmbH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소프트웨어
모기업명	티맥스소프트

◦ LG Electronics Deutschland GmbH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전기/전자제품
모기업명	LG 전자

◦ Woori Europe GmbH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금융
모기업명	우리은행

◦ SK Innovation Frankfurt Office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전기차용 배터리
모기업명	SK 이노베이션

○ Hanwha Total Petrochemical Co., Ltd. German Branch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에너지
모기업명	한화토탈

○ GIIIR GmbH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광고
모기업명	HS애드

○ Ray Europe GmbH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치과용 영상진단장비
모기업명	레이

○ M3 Mobile GmbH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산업용 PDA, 스캐너, POS 등 기기
모기업명	엠쓰리모바일

○ Seegene Germany GmbH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채외진단시약
모기업명	씨젠

○ AWP Europe GmbH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자동차 튜닝
모기업명	에이더블유평

◦ I-Sens GmbH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전기식 진단 기기
모기업명	아이센스

◦ Hyundai Electric Frankfurt Branch

진출년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전기전자 제품
모기업명	현대일렉트릭, 앤에너지시스템(주)

◦ NVH Germany GmbH

진출년도	201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자동차 소음진동 및 열관리 부품
모기업명	엔브이에이치 코리아(주)

◦ Hexa GmbH





진출년도	201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
모기업명	(주)원시스템즈

◦ Cap Corporation Ltd. Germany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차량와이퍼
모기업명	캐프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p>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p>
---	---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 법률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이 법인에 해당한다. 해외 기업이 자회사(Tochterunternehmen)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형식이므로, 영업신고나 상업등기와 관련해 독일 규정이 적용된다. 회사 설립 주체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회사 설립, 영업신고 및 상업등기부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독일 법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지 법인은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구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신고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면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국의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독일 내 영업 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기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의할 사항은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절차가 종결돼도 회사 상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상업등기번호 발급 후에도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개인적 책임이 면제된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독일 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한국을 생활중심으로 삼는 것이 가능해져, 자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독일 내에 주소지를 둘 필요가 없다.

○ 현지 법인: 독일에서는 법인이라는 법적 형태가 크게 유한 책임회사(GmbH)와 주식회사(AG)로 분류될 수 있다. GmbH는 독일 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법적 형태이다. 현재 독일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들은 은행 등의 금융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GmbH 형태다. AG의 경우 지분 분산 및 자유로운 주식양도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관계로 설립절차부터 비교적 복잡하며, 설립 이후에도 모든 관련 법규의 규제가 엄격하다. 참고로 GmbH는 주식(Aktie)이라는 것이 없고 지분(Anteil)이라 표현해야 맞다. 독일 GmbH 법상 최소 등기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1인 주주가 가능하다. 한국 기업의 독일 진출 경우, 모회사가 대부분 현지 법인의 유일한 주주(Alleingesellschafter)다. GmbH는 독일 법인세, 영업세, 부가세의 대상이며, 독일의 회계원칙에 따른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어 매년 독일 세무서에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독일 상법(Handelsrecht)상 매년 전자연방관보(elektronischer Bundesanzeiger)에 재무제표를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특히 세무 처리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독일 현지 법인은 대부분 본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Konzernverrechnungspreis)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 법인이 본사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가격이 너무 높았다고 세무조사관이 평가하게 되면 독일법인의 세전 이익이 상향 조정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법인의 장점

-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법인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조직체로서 본사의 책임은 주주로서 납입한 자본금에 국한된다. 따라서 독일 법인의 성과가 좋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 본사는 투자한 자본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 의무는 없다.

○ 법인의 단점

- 법인은 법인세와 영업세의 대상이다.
- 독일 세법에 따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매년 연방 전자관보에 당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 법인은 반드시 자본금을 납입해야 설립절차가 완료될 수 있으며, 독일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다.
- 청산 절차가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

지사

○ 독일 지사는 Zweigniederlassung 이라 불리며, 상업 등기가 요구된다. 지사는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외국 기업의 지사인 경우, 모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법에 종속된다. 본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본사와 동일한 회사명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회사명에 일정한 구를 추가하는 것(‘독일 지사’ 또는 ‘프랑크푸르트 지사’)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등기 지사는 관할지역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

○ 지사는 등록 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모기업의 설립 인정서와 같은 필수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한 경우, 서류를 독일 법원이 인정하는 번역사를 통해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독일에 설립된 외국 모기업의 등기 지사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사장을 선임한 후, 모기업을 대신해 직접 거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반면 비 등기지점의 경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하다. 독립지사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을 비롯한 상업적 계약이 가능한 반면, 비 독립 사업장의 경우 본사를 대신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인보이스는 본사 이름으로 발행 가능하다. 그러나 지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본사이다. (본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당해 개인)

○ 지사는 독일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독일 회계원칙에 따른 기장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 공시 의무는 없으며, 설립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독일 지사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 및 판매 실적은 독일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영업과 관련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기초는 본사의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해, 독일과 본국에서 모두 납세를 하는 이중과세 상황을 피하고자 한국과 독일은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독일 지사는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 지사는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사장 이외에 별도의 경영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노동자 협의회는 합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의해 인정되며, 주로 회사 경영상의 조언을 구하거나 직원들에게 경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지사의 경우, 본사가 자본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본사가 영업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지점은 연락사무소에 비해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영업활동으로 인해 적절한 매출액을 창출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다. 즉, 지점이 설립 후 몇 년 동안 이렇다 할 매출액을 창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손실만 발생할 경우, 독일 세무서의 강력한 추가 문의 및 세무조사의 빈도가 높아진다.

○ 지사의 장점

- 본사가 자본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 지사는 본사의 일부이므로 본사가 지사를 통제하기 쉽다.
- 지사는 모기업을 대신해 직접 거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법인과 달리 연방 전자관보에 당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는 없다.

○ 지사의 단점

-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영업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세율도 동일하다.
- 지사는 국내 본사의 법적 일부로서 본사는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 지사 설립 및 상업등기부 등록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독일에 설립될 지사가 한국 대형기업의 지사로 등록돼야 하는 경우라면 본사와 관련된 한국 상업 등기부상 내용을 모두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 무한책임과 번거로운 등록 및 변경 절차를 이유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지사보다 법인 형태를 선호하는 편이다.

연락사무소

○ 설립 이후에 세무, 회계에 대한 의무적인 관리업무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연락사무소(Repraesentanzbuero)의 법적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연락사무소의 특징은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영업에 필요한 시장 정보 즉 산업 및 비즈니스 정보 조사 등 본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Taetigkeiten vorbereitender Art oder Hilfsstaetigkeiten)에 국한돼 운영되는 조직이다. 연락사무소가 수행할 수 없는 행위는 예를 들어 인보이스 발급, 고객의 유치를 위한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계약의 서명행위나 고객으로부터 상품주문이나 계약서의 수령과 관계된 서신 등이다.

○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와 영업세는 납세할 필요가 없는 반면, 급여 소득세(Lohnsteuer)와 부가세(Umsatzsteuer)는 신고해야 한다. 급여 소득세와 부가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도 직원이 있는 한 급여 소득세가 발생한다. 또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아 매출 부가세(Ausgangsumsatzsteuer)는 없을 수 있지만,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는 순간 매입 부가세(Eingangsumsatzsteuer 혹은 Vorsteuer)는 발생한다. 부가세 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해 연락사무소가 지불한 매입 부가세를 환급 받는다

○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지점(Zweigniederlassung)으로 간주돼(세법적으로는 고정사업장/Betriebsstaette 이라 한다) 법인세, 영업세 등의 추징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연락사무소의 유지 기간이 5~10년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사무소의 직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세무서는 서류상의 사무소가 실제 고정사업장일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 진출 초기 단계에서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유럽 및 독일시장에서 매출 창출이 임박할 경우 세무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현지 영업의 효율성과 거래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점 혹은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락사무소 장점

- 세무, 회계 등 관리업무 최소화
- 상업 등기소 등록, 자본금 납입,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 없다.
- 독일에서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청산이 쉽다.

○ 연락사무소 단점

- 영업 및 매출 창출이 불가하다.
- 본사는 연락사무소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 독일에서 매출이 달성할 단계에 달성하면 법인이나 지사로 전환이 필요하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 증권시장 상장을 필요로 하는 독일 중견기업, 대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로서, 1인(소규모 주식회사) 또는 다수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1인 이상의 이사와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한다. 법정 최소자본금은 5만 유로이며,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돼 있다. 자본금은 현금 내지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자본금을 예치할 경우 총 자본금의 15%만 예치하면 된다. 주식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주식회사의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이다.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의사 표시는 유한회사에 비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 주식회사 설립 신고 서류 중 회사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 규모, 주식 최소 비용,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 주식 발행 종류(무기명 주식 또는 기명 주식), 이사회 감사의 수,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된다.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은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 이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해 이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를 공증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1주의 최소 금액은 1유로이며,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1주 금액의 자본금이다. 부분주의 경우, 배급 금액과 총수를 기재하며, 주식의 종류가 여럿일 경우 주식의 종류를 기재한다. 또한, 추후 상장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커다란 장점은 영업지분을 양도할 경우, 공증인이 그 과정을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지분의 이전 및 주식 양도가 용이하다. 이 밖에도 주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존속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 반면에 주식회사는 상당한 계획과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최소자본금이 유한회사의 2배인 50,000유로에 달할 뿐만 아니라 설립 자체도 까다롭다. 설립 단계 이후에도 주식회사인 기업은 수많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강행법규가 개입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영역에 커다란 제약이 따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조직과 재정조달에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통해 훨씬 더 유리한 기업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증권시장을 통해 언제든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을 통한 자원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분을 매각하거나 단기간 내에 증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은 있으나 독일 증권시장에 상장한 한국 기업은 아직 없으며, 자원 조달은 대부분 외부 투자가가 아닌 모기업에서 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현실이라 대부분 국내 진출기업은 유한책임회사(GmbH) 형태를 선호한다.

유한책임회사

○ 독일의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로서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 독일의 전체 물적회사 가운데 약 90%가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한국 지상사 약 95%가 사용하고 있는 법인 형태이기도 하다.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 등록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50%, 최소 12,500유로를 예치하면 된다.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이 경우 현물출자의 대상과 그 평가액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GmbH의 출자사원은 자기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나, 주주에 의한 보증이나 차입 등에는 무한 책임을 진다.

- 정관 작성은 의무이며 공증인의 인증을 요한다. 유한회사의 근본 취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처럼 등재사항을 엄격히 정해두고 있지 않으나, 절대적인 등재사항으로는 ① 상호 및 본사의 소재지 ② 영업 목적 ③ 자본금 ④ GmbH를 구성하는 각 사원의 출자액 등 4개 항목이다. 회계연도의 정관상 기재는 임의 규정이지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기업의 존립기간을 설정했을 경우나 혹은 출자자인 사원이 자본출자 이외에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정관에 담을 필요가 있다. 또 영업내용 또는 출자자인 복수사원 또는 대표자의 성이 상호에 명시되어야 하며, GmbH임을 반드시 상호에 명기해야 한다.

- GmbH의 경영은 정관에 명기되거나 출자자가 선임하는 1인 내지 복수의 인물이 담당한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의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업무집행에 관한 대표권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권은 제 3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 3자에 대해서는 사장이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사진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및 대표권의 종료는 상업등기부에登記된다.

-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단, 소자본 회사의 경우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감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 500명 이하의 회사는 정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한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 500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감사회의 1/3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기업(석탄, 철강제조업 제외)에서는 동의를결차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감사인의 1/2은 근로자 대표여야 한다. 찬반 동수의 경우는 경영자 측이 선임한 의장이 2표를 행사한다.

-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립 시 해당 지역 관할 지방법원(Amtsgericht)에 등록 의무가 있다. 또한, 지분의 이전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공증인에 의한 절차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유한회사는 회사 재산에 한정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사원 및 대표이사는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초래한 결과, 즉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유한회사라도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영권 남용, 불법적 횡령 등으로 회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지분으로 표기되며, 지분의 이전과 양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에 의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2008년 11월 1일 이후 영국의 유한회사(Ltd.)와 유사한 설립 자본금 1유로의 미니 유한회사(UG: UnternehmensGesellschaft) 설립이 가능해졌다. 단, 자본금이 25,000유로가 될 때까지 연 매출의 25%를 자본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후 유한회사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유한회사(GmbH)로 법인 변경이 가능하다.

- 유한회사의 첫 번째 장점은 설립자의 최소 숫자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한 사람만으로도 얼마든지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유한회사는 자기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해 회사 사원은 개인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책임이 제한된다는 면에서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데 커다란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소액의 자기자본을 가진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 투자가 또는 은행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책임의 제한으로 인해 파산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본금의 액수가 실제 거래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또한, 유한회사 청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 아울러 독일 관련법이 요구하는 각종 문서화 의무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장도 개인 자산으로 책임도 져야 하고, 추가적으로 형사 소송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GmbH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 GmbH의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일단 GmbH의 자본금 절반가량이 손실됐을 경우 독일 유한회사법 제49조 3항에 따라 법인장은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가 없어 회사의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면 법인장의 신고 의무는 더 확장된다. 독일 파산법 15a조 1항에 따라 법인장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의 초과를 인지 후 늦어도 3주 이내에 파산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파산 지연이라는 불법행위로 파산절차를 방해했으므로 형법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자

○ 개인회사는 독일에서 제일 간단하고 많이 선택되는 기업형태이다. 1인 소유로 회사조직의 최하위 기본요소이며, 법적으로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설립절차도 간단해 공증인도 필요 없고 자영업 신고(Gewerbeanmeldung)를 통해 자동적으로 개인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소유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운영된다. 회사명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소유자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예: Peter Meier 혹은 EDV-Versand Peter Meier). 현재 독일에서는 대다수의 1인 소유 영업소(이발소, 과일 가게, 빵집, 정육점 등)가 개인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인 창업자가 개인회사의 법적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한 설립절차와 설립 이후의 낮은 관리비용 때문이다. 회계 의무와 관련해 법인은 독일 상법에 따라 복식부기가 요구되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개인회사는 이에 비해 단순하고 저렴한 현금주의 회계가 허용된다. 조세부담도 초창기에는 개인회사가 자본회사보다 유리한 경향이 있다.

○ 개인회사는 기본적으로 공시의무도 없다. 독일 공시법에 의거하여 개인회사는 자산 총계가 6,500만 유로 이상이고 매출액이 1억 3,000만 유로 이상인 극단적인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개인회사의 치명적인 단점은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또한, 투자 이민의 경우 개인회사의 설립 명목으로는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다(자료원: Fidelis Accounting, 2016년 7월 확인 정보 기준).

유럽회사(SE)

○ 유럽회사(Societas Europaea)는 유럽연합 내의 주식회사를 통칭하는 법인 형태이다. 유럽연합(EU)은 2004년 말부터 통일된 법 형식에 의거한 법인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유럽회사는 유럽의 기업들이 유럽 전 회원국에서 동일한 법 형식을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을 지주회사(Holding)에 결합할 수 있다. 또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적 토대를 지닌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존 방식 대신, 유럽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단일 규범을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인형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호응이 없는 상황이며, 유럽 전역에 걸쳐 활동하는 Allianz 등 소수의 대기업만이 법적으로 유럽 회사로 전환했다.

합자회사(KG)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로 무한책임 사원들만이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경영권 및 대표권은 무한책임 사원들에게만 주어진다. 한국에 대표 1명(limited partner)이 무제한 책임을 지고(상법상 무한 책임사원)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는 소유한 주식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상법상 유한 책임사원) 형태로, 최소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 자본 인적회사(GmbH and Co. kg)는 합자회사의 변형된 형태로서 유한회사(GmbH) 자체가 무한책임주주이며 그 외 1인 이상의 유한책임주주가 존재한다. 최종적으로는 자본 인적회사의 모든 책임이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GmbH and Co. KG는 일반 KG와 달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공시의무가 있다. 유한 책임사원의 경우 단지 행위대리권이 부여되고, 그 경우 대리서명 등이 가능하다.

○ 독일의 경우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도 상장하지 않고 KG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독일에서 상장한다는 뜻은 미래의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본을 회사 내에서 감당하지 못해 외부에서 새로운 주주의 자본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류 중소기업들은 회사 내에서 창출한 영업이익을 통해 모든 투자자본을 마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기 때문이다.

○ 또한, 독일 관련 법상 OHG와 KG 같은 인적회사는 AG, GmbH 등 법인회사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다. 공시의무는 거래처와 은행들이 회사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이나, 인적회사는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채권자 보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기업 중 기업 정보(매출액, 자산, 영업이익) 등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KG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합명회사(OHG)

○ 합명회사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출자자로 설립 가능하며, 출자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를 구성하는 무한책임 사원에게는 경영에 참가할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된다. 경영의 범위는 영업활동에 따른 모든 업무를

포함하며, 법적 수속을 거쳐 회사의 경영에 해를 끼친 사원의 경영 참가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한편, 무한책임 사원은 각각 제3자에 대해 회사의 대표성을 부여받으며, 이 대표성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

○ OHG는 아래 조합 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온전한 상인(Vollkaufmann)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독일 상법(Handelsgesetzbuch, HGB)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OHG의 장점은 거래처와 은행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상업등기소에 등기도 돼 있고 정확한 회계장부 덕분에 올바른 재정분석도 가능하며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OHG(합명회사)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기 매우 유리하다. 단점은 필수적으로 공증인(Notar)을 통해 상업등기소에 등기해야 하며, 독일 상법에 따라 무조건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하는 이유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번거롭다는 점이다.

조합(GbR)

○ 최소한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해 설립 가능하며, 특히 소액의 사업자본만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하는 형태다. GbR은 인적회사 중 가장 간단한 회사형태로 최소한의 설립 관련 구비서류만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면상의 정관을 추천한다. 법정 의무 자본금이 없고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의 등기 의무와 공시 의무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조합은 상업 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영업 활동을 하는 조합은 자발적으로 합명회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자유업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무소 또는 병원을 운영할 경우 많이 이용한다. 합명회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무조건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하나, GbR(민법상의 회사)는 상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주의 회계도 허용된다. 다만, 독일 조세법(Abgabenordnung) 제141조에 따라 1년 매출액이 500,000유로 이상이거나 1년 순이익이 50,000유로 이상일 경우 회사형태를 막론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EUKO Consulting GmbH

전화번호	+49 6171 586690
주소	Karl-Hermann-Flach-Strasse 25, 61440 Oberursel
홈페이지	http://eukogroup.i-netpia.net
이메일	info@eukogroup.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정준 부장(Park, Cheong-Joon), 조은영 변호사(Cho, Eun-Young))

○ Ernst and Young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 mbH

전화번호	+49 6196 996 0
주소	Mergenthaler Allee 3~5, 65760 Eschborn
홈페이지	http://www.ey.com/
이메일	info@de.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사무엘, Samuel Park)

○ Fidelis Accounting GmbH

전화번호	+49 6196 77666 10
주소	Ludwig-Erhard Strasse 30-34, 65760 Eschborn
홈페이지	http://www.fidelisaccounting.wordpress.com/
이메일	rizzop@fidelisaccounting.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병구 대표 및 독일공인회계사(Kim, Byung Koo))

◦ Huette Bohnstedt Rechtsanwaelte

전화번호	+49 69 247 561 20
주소	Schaumainkai 69, 6059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huette-legal.com/
이메일	t.kim@huette-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태은(Kim, Tae Eun))

◦ KPMG AG

주소	The Squire, am Flughafen, 6054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kpmg.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비고	이메일 문의 : https://home.kpmg.com/de/de/home/misc/kontakt.html

◦ Pricewaterhouse Coopers AG(PWC)

전화번호	+49 69 9582 6282
주소	Friedrich-Ebert Anlage 35-37,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pwc.de/en
이메일	webkontakt_anfragen@de.pw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강성원 회계사(Kang, Sung-Won), 백종환 회계사(Baek, Jonghwan))
비고	추가 이메일 문의: jong-hwan.baek@kr.pwc.com

◦ FPS Rechtsanwaelte und Notare

전화번호	+49 69 95957 0
주소	Escherheimer Landstrasse 25-27, 60322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fps-law.de/
이메일	frankfurt@fps-law.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조익제 파트너 변호사(Cho Ikze))

◦ Janolaw Chung Rechtsanwaelte

전화번호	+49 6196 7722 550
주소	Otto-Volger Strasse 3c, 65843 Sulzbach
홈페이지	http://www.jc-law.de/
이메일	info@jc-law.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정하성 박사 및 변호사(Dr. Chung, Ha-Sung))

◦ Park and Lemke Rechtsanwaelte

전화번호	+49 6196 9738 400
주소	Ludwig-Erhard-Strasse 30-34, 65760 Eschborn/Ts.
홈페이지	https://plc-law.de/
이메일	info@plc-law.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승관 변호사(Park, Sung-Kwan))

◦ Pfaff-Hofmann and Lee Legal Rechtsanwaltsgesellschaft mbH

전화번호	+49 30 3980 6371
주소	Potsdamer Strasse 144, 10783 Berlin
홈페이지	http://www.hanyang-law.com/
이메일	info@hanyang-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정희 변호사(Lee, Jung Hoi))

◦ Norton Rose Fulbright LLP (원헌,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전화번호	+49 69 505096 0
주소	Taunustor 1 (TaunusTurm) 60310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
이메일	heledd.phelps-brown@nortonrosefulbright.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	---

◦ Lee and Stach Rechtsanwaeltelmmermannstr. 14-16

전화번호	+49 211 303 301 10
주소	Steinwayhaus Immermannstrasse 14-16, 40210 Duesseldorf
홈페이지	https://www.anwalt.de/lee
이메일	kanzlei@rechtsanwalt-lee.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 피터 변호사 Peter Lee)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독일 내 투자가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독일 자회사가 과도한 비용만을 야기하는 경우에 청산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진출기업이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인 유한책임회사(GmbH)의 회사 청산 과정을 설명한다.

회사 청산은 회사의 파산과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회사 청산은 회사가 채무를 이행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모기업 또는 사원이 독일 내 회사를 청산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반드시 일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사 등기법원이 이러한 요건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독일 법인 철수 및 청산은 해산, 청산, 종결의 3단계로 구분된다. 회사 청산은 회사가 상사등기부에서 말소되는 것을 뜻하며, 해산(Aufloesung)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산은 기업의 청산과 법인격 소멸을 목적으로 하며, 주주총회 시 주주 75% 이상이 해산에 찬성하면 해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파산을 통해 강제로 해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도 있다. 해산절차 개시 일시를 명시하지 않으면 즉시 유효하다.

청산(Liquidation)은 법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결(Loeschung)은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해 주주에게 배분한 후 상업등기소 등기부에서 법인 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이다.

가. 법인 청산 및 철수

해산-청산-종결의 절차를 거치며, 단계별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1) 해산

○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원인은 되나 청산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기업은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능력이 있다. 회사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투표 참가 자본 75% 이상이 해산에 동의하면 해산 절차를 개시한다. 해산 결의는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유효하나, 해산 결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해산과 함께 대표 이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관련 법령: 유한회사법(GmbHG) 60조 1항, 주식 회사법(AktG) 262조 1항

○ 법인이 해산을 결정하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청산인으로 통해 상업등기소에 등기할 의무가 있다. 즉 독일 공증인의 입회하에 청산인이 관련된 신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 관련 법령: 유한회사법(GmbHG) 65조 1항, 주식 회사법(AktG) 263조

○ 해산 개시 후 법인은 기업명 뒤 'i.L(in Liquidation - 청산 중)'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법인이 해산 중이라는 사실을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통지는 독일 관보(Bundesanzeiger)에 1번 공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인의 목적을 경제적 영업에서 법인 자산의 청산으로 변환한다.

- 관련법령: 유한회사법(GmbHG) 65조 2항, 주식회사법(AktG) 267조

○ 동 통지 내용을 개시해야 하는 기간은 없으나, 공고가 이루어진 기점으로 1년 동안은 회사 자산의 분배가 정지되는 채권자 보호기간이 있어 적합한 시기에 공고를 내야 한다.

- 관련법령: 유한회사법(GmbHG) 73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2조

2) 청산

○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인은 대외적으로 청산기업을 대표한다.

- 관련법령: 유한회사법(GmbHG) 66조, 주식회사법(AktG) 265조

- 대부분 대표이사가 청산인 역할을 부여 받지만 제 3자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 청산인은 공증형식을 거치면서 상업등기소 신고를 통해 등기법원에 대해 자신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실과 관련하여 형법, 영업법 또는 직업법에 비추어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이는 기존 대표 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도 동일하다.

- 관련법령: 유한회사법(GmbHG) 67조 3항, 주식회사법(AktG) 266조 3항

○ 청산인은 아래 사무활동을 통해 기업 자산을 현금화한다.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관련법령: 유한회사법(GmbHG) 70조, 주식회사법(AktG) 268조 1항

- 청산인이 청산 법정 규정을 어길 경우 개인 자산으로 손해 금액을 충당해야 한다.

○ 아울러 공증인은 채권자에게 법인의 청산 개시를 공시해야 하고, 1년 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신고 요청을 독일 관보(Bundesanzeiger)에 공고해야 한다.

-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를 상사등기부에서 말소할 수 없으며, 공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다.

- 1회 채권신고 공고가 이루어진 기일을 기점으로 1년 동안은 회사 재산의 분배가 정지되는 채권자 보호기간이 된다.

- 보호기관이 경과한 이후 청산인은 청산종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관련법령: 유한회사법(GmbHG) 71조 1항, 73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2조 1항

○ 청산인은 모든 채권을 변제한 후 현금화한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 관련법령: 유한회사법(GmbHG) 72조, 주식회사법(AktG) 271조

- 분배 후 법인의 기타 자산이 존재할 경우 추가청산이 필요하며, 새로운 추가청산 청산인을 임명해야 한다. 대부분 세금 상환, 매출채권 등이 청산 후 발견되는 경우 추가청산을 하게 된다.

3) 종결

○ 법인 채권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상업등기소에 기업의 종결을 공증하여 신청한다.

- 관련법령: 유한회사법(GmbHG) 74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3조 1항

○ 청산이 종결된 이후에도 회사의 장부와 문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 관련법령: 유한회사법(GmbHG) 74조 2항, 주식회사법(AktG) 273조 2항

○ 해산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사등기부 사본에 삭제 표시가 이루어지는데, 이로써 당해 회사는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나. 법인 파산

부득이하게 독일에서 파산하는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GmbH) 등 법인일 경우에도 파산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파산이 임박할 경우 전문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파산 신청의 경우, 법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Insolvenzverwalter)은 특히 주주의 GmbH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주주의 GmbH에 대한 영향력 상실, 향후 유럽 내 영업제한에 따른 불이익, 한국계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이미지 상실, 파산신청 및 절차에 대한 복잡성, 파산관재인에 대한 높은 수임료 등을 고려하면 파산을 통한 회사정리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독일 진출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주주(본사)의 임의청산 방법을 통해 독일 내 사업을 정리한다.

○ GmbH(유한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하면 GmbH의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은 지켜야 할 의무가 많아진다. 독일 관련법상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 책임은 물론 형사 소송절차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

- 일단 GmbH의 자본금 50% 가 손실되었을 경우 독일 유한회사법(GmbHG) 제49조 3 항에 따라 법인장은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자본금의 손실은 연말 재무제표에 의하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연중에도 월말결산을 통하여 자본금 50% 의 손실이 확인되었으면 주주총회 소집 의무가 발생한다. 주주총회 소집은 반드시 서면상으로 통보할 것을 권하는데, 이는 향후 법원의 조사 시 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 주주총회의 목적은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영업정책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그러나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가 없어 회사의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면 법인장의 신고 의무는 더 확장된다. 독일 파산법(Insolvenzordnung) 제15a조 1항에 따라 법인장은 지급불능(Zahlungsunfaehigkeit) 또는 채무초과(Ueberschuldung)의 인지 후 즉시, 늦어도 3주 이내에 파산 신청(Insolvenzantrag)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급불능은 채무자(= 위기의 GmbH)가 만기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채무초과는 채무자의 자산이 채무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할 경우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채무초과는 완전자본잠식을 뜻한다.

- 중요한 것은 채권자(예: 은행, 의료보험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인장의 파산신청 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인장은 파산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파산 신청 시 파산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서술은 파산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임시 파산관리인(vorläufiger Insolvenzverwalter)을 지명하여 파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검토한다. 파산절차 비용이 자산 부족으로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신청은 거부당한다. 이럴 경우 검찰청에 통보되어 형사소송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파산절차를 개시하게 되어도 파산관리인은 파산신청 시점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파산신청을 너무 늦게 제출했다고 판단되면 파산 지연이라는 범행으로 법인장이 형법의 대상이 된다.

○ 파산관리자는 파산 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의 채권만을 만족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법적 행위를 취소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독일 파산법 제129조). 특히 파산법 제133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가해의사를 알고 취득했을 경우, 파산관리자는 파산 절차 개시 10년 전에 채무자가 실행한 법적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더불어 파산신청과 관련된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파산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임시 관리자 임명
- 채무자에게 처분을 할 경우 임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처분금지를 지시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 지시 가능 등

○ 만약에 도산재단 (insolvency assets)이 충분히 존재하고 파산 이유 (지급불능, 지급불능 위협 또는 채무초과)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의를 가지며 동시에 파산관리자를 임명하게 된다. 관할 법원은 파산관리자 임명 관련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제의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임시 파산관리자가 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파산관리자로 지명된다.

○ 파산 절차의 개시는 공적으로 인하여 홈페이지(www.insolvenzbekanntmachungen.de)에 공표되며, 등기 및 상업 장부에 등록된다. 동시에 파산 절차 개시 결의에는 채권자 회의 일자가 정해지며, 파산관리자 보고서 기반으로 파산 절차 진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다. 동 일정은 파산 개시 후 최대 3개월 안에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일정도 결정된다.

○ GmbH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법인장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은 고용주의 우선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급여 지급과 같이 발생하는 급여세와 사회보장세의 납부 의무는 일단 미루게 된다.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은 특히 세무서와 의료보험회사가 강력하고 유능한 채권자며 급여세와 사회보장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업청에 통보를 보내 영업정지 절차의 개시를 검토하게 된다는 것이다.

○ 독일 영업법 제 35조 1항에 의거하여 영업자가 영업을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영업정지 절차의 개시를 검토한다.

- 세법과 사회보험법적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력이 없을 경우

- 부족한 직업 책임정신
- 재산 명시에 따른 무재산 선서
- 형사 소송 절차 등

○ 당사자는 영업청에서(Gewerbeamt) 영업정지절차의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당사자에게는 대부분 2주 기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영업청과 연락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불쾌하거나 귀찮은 편지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영업정지 절차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후 수령하는 편지도 미루지 말고 곧 바로 읽어야 하며 우체국에 보관된 편지도 신속히 찾아와야 한다. 특히 휴가나 출장 시 편지를 대신 처리할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영업청의 담당자와 약속한 회의나 자료제출은 반드시 지키고 혹시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영업청의 담당자와 친밀한 대화 중 영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한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다. 채권자들(세무서, 의료보험회사 등)과 협상하여 밀린 빚을 할부로 갚을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자들과의 협상 결과를 영업청이 요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영업청 담당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 시 서면상의 증빙서류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88유로(2018년 11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915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915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0.56
-------------------------	-------	-------------------------	-------	-------------------	-------

<자료원 : www.stauffenbiel.de, www.gehalt.de, 독일 노동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근무 시작일
- 수습 기간 및 계약 기간

대부분 직장은 3-6개월의 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측정하며, 수습 기간 내에는 2주 전에 통보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년 이내의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직책 및 근무내용

만약 영주권이나 취업비자가 없는 한국인의 채용을 희망할 경우 독일 노동청은 독일인 또는 EU인이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왜 꼭 한국인이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예: 한국의 언어, 문화 지식 필요, 한국 등 동아시아 업무 및 실무 경험 필요 등)

- 급여

대부분의 독일 기업은 13개월 치 보너스를 지급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기업의 다른 직원들이 수년간 13개월 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직원도 13개월 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13개월치를 벗어난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독일 진출기업은 한국 일반 신입사원과 비교를 하여 월급의 적정선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독일 노동청의 기준은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독일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낮은 월급이 지불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연방 주마다 평균월급에 차이가 있으므로 취업체류권 신청 전에 해당되는 주에서 어느 정도의 평균월급이 지불되는가를 알아본 후 이를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초과근무, 휴가

근로시간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이다. 6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와 1년에 최대 60일은 하루 10시간으로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동안의 휴식은 필수이며, 다음 근무 전까지 11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휴식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아침 10시부터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게 돼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약 15분은 '짧은 휴식'으로 보장돼 있다. 짧은 휴식의 경우 15분이 최소 단위이며 6시간 이상 휴식 없이 근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노동시간법(ArbZG) 4조).

그러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곳이 많다. 철강 산업의 경우 주 근무 시간은 서독지역의 경우 35시간이며, 동독지역은 38시간이다. 소매업계의 경우 평균 37.5시간, 공공 업계는 38.7~42시간이다. 또한, 산업별로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즉, 일반 직장의 평균적인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직장이

나 개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를 신청한 경우가 빈번하다. 금요일에는 평일보다 1~2시간 일찍 종료하는 회사가 많다. 일반 관공서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12시까지만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휴가

독일 근로자의 연차는 최소 20일에서 30일 정도까지 가능하다. 주 5일 영업기업의 경우 최소 20일, 주 6일 영업기업의 경우 최소 24일이 적용된다.

출산휴가 일수는 총 14주로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주이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출산을 계기로 육아를 위해 임금을 계속 지급받지 않고 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때에는 만 8세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이다.

해고

독일에서는 해고보호법(Kuendigungsschutz)과 같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노동 법규를 통해 고용인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는 크게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해고,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 및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고로 나뉜다.

현실적으로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해고 후 직원은 노동법원에 소송을 할 것이며, 직원이 매우 큰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원은 고용주와 직원의 합의를 권한다. 통상적으로 고용주가 1년 근무에 0.5~1개월 급여를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금

독일의 경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건강보험 지불액은 세전소득의 14%~14.6%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7%~7.3%)이 부담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지불액은 세전소득의 3%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1.5%)이 부담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지불액은 세전소득의 최대 1.6%이며, 고용주가 100% 부담한다. 산업별로 지불액이 다르다.

국민연금

독일에는 한국처럼 국민연금과 유사한 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연금보험에 급여의 일부를 납부하며, 이 금액은 곧바로 연금 수령자에게 전달된다. 연금보험 지불액은 세전소득의 18.6%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9.3%)이 부담한다.

요양보험

요양보험 지불액은 세전소득의 2.55%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1.275%)이 부담한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며, 법인이 창출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Koerperschaftssteuer), 영업세(Gewerbesteuer), 그리고 통독세(Solidaritaetszuschlag)가 부과된다.

법인이 정관에 의해 법적 소재지를 독일 내에 두거나 경영의 중심지를 독일에 유지하는 경우, 독일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 소재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인은 비소재지로 간주된다. 독일 소재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지 독일 원천 소득만 과세할지가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독일을 소재지로 하는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으며, 비소재 법인은 독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독일 원천소득에는 독일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창출된 소득, 독일 회사 주식의 양도소득, 농업 및 산림소득, 임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 특정소득이 포함된다. 회사의 상장 여부에 의한 차이는 없으며, 독일에 위치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도 독일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독일의 세금계산 목적의 세무 회계는 기업회계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세법규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결정하고 있다. 회계 장부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표준을 추징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 설립 또는 증자로 인해 발생한 창업비 등은 자본화하지 않으며, 이들 비용은 발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된다. 창업비는 회계사와 변호사 수수료 및 등록비를 포함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2008년 1월 1일 법인세율을 과세 대상 수입의 25%에서 15%로 인하했으며, 영업세의 기본세율도 5%에서 3.5%로 낮추는 등 기업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실효세율이 평균적으로 30% 이하로 경감됐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 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독일 투자유치 효과를 보고 있다. 2008년도부터 이자 비용 손금 산입 한도액이 도입돼, 연간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의 30%까지만 손금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이월된다. 영업세(거래세)의 손금산입 제한으로 영업세 납부금액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세

현재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구분돼 있다. 소득세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모든 원천소득을 합산한 후 25%의 단순세율이 적용되지만,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이 단일세율 25%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독일 거주자 법인의 국외 원천소득은 독일에서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독일 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이런 목적에 따른 국외 원천소득에는 농업 및 산림소득, 다른 상업적 소득, 특정 자산 및 주식양도소득, 특정투자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항목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목이 독일 법인세/소득세와 동등한 성격의 세금이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관해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한 기간에 세액공제 혹은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 납부 세금은 이월이 불가능하다.

2019년 1월 1일부터 독일 개인소득세의 기본 공제 상한가는 기존의 9,000유로에서 9,183유로로, 2020년에는 9,408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부터는 소득신고 기한이 해당 연도 이듬해 7월 31일까지로 변경된다. 즉 2018년 소득신고는 2019년 7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는 높아지며, 세전 소득이 265,327유로 이상인 경우는 가장 높은 45%의 개인 소득세(부자세) 요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여부, 주요 관리장소, 청구/지불의 장소 등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독일 내에서 과세 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독일의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세무 행정에 관련해 하나의 세무등록 번호가 주어지며, 신청 시 추가로 부가

세 번호가 각 등록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2007년 1월 이후 독일의 부가가치세율은 19%이나, 서적, 신문 및 식료품(음료수 제외) 등의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는 기존의 7%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으로는 의료, 교육, 자선,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호텔 및 숙박업계에는 기존의 19%에서 인하된 7%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초 1968년 10%로 적용된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독일 전체 세금 징수액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독일 총 세금 징수액은 7,347억 유로이며, 이 중 부가가치세 수입이 30.8%인 2,264억 유로를 기록했다.

특별소비세

독일에서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는 담배, 커피, 전기, 에너지(구 석유세)와 맥주, 중간제품(와인과 증류주 사이 단계), 스파클링 와인 등을 비롯한 알코올 및 알코올 포함 음료수 등에 적용된다. 2017년 특별 소비세 부과에 따른 세수 규모는 593억 유로로 이는 총 세수의 9%에 해당한다. 이 중 에너지세가 총 410억 유로(2017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솔린의 경우 리터 당 65ct, 디젤의 경우 리터 당 47ct가 적용된다. 1999년 4월 1일 도입된 전기세는 연 세수 규모가 70억 유로에 달하며, 일반적으로 전력공급기업으로부터 징수되는 데, 이는 전기가격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청구된다. 전기세는 현재 20.50유로/MWh이다.

영업세

독일의 영업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최소 7%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독일의 영업세(Gewerbesteuer)는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제도다. 영업세는 법인세와 달리 법인뿐만 아니라 과세소득 규모가 일정 한계를 넘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영업세는 법인기업에 법인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그 외에 법인 형태를 가지지 않는 개인기업에게도 부과되므로 전체적으로 정부부문에서 법인세 수입보다 세수 비중이 더 높다.

영업세의 기본세율은 공제액을 제하고 100유로 단위 이하를 절삭한 후 영업세 산출 승수를 적용한다. 영업세 과표 산출 승수는 기본세율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최종적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세 과세표준이 확정되며 이것이 납세자에게 통보되고, 동시에 세액의 확정을 위해 법인 소재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도 통보된다. 영업세는 지역별로 적용 요율이 상이하므로, 국내 주재상사가 독일 진출 시 입지를 선정할 때 비용 절감을 위해 고려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타/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외국 법인은 독일에서 유한 납세자로 간주되며, 오로지 독일 원천소득에 근거해 과세된다. 원천소득에 근거한 납세로 인해, 배당금이나 로열티와 같은 수동적인 소득에 근거한 조세는 독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 소득세로 정산된다. 조세협약(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적용되는 곳에는 세무부담 없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 사무소의 피고용인은 연락이나 부수적인 업무의 영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로 간주될 만한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독일 소재 대한민국 법인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96개국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해 세금 감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형적으로 조세 조약에는 소득 원천 국가나 소재 국가 중 한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상대국은 동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허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사회보장세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 파견되는 근로자는 양국의 연금제도에 이중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됐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999년 1월부터 유럽경제통화연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 가입국의 외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독일 정부의 자체 외환관리 정책은 없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화 사용국의 외환관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담당하고 있다. ECB의 통화정책은 통화 안전성, 즉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CB는 다른 통화 대비 자유 유통(Free-float) 전략을 추구하며, 유로존 국가에 대해서 외환개입 의무를 진다.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EU 국가 간 편차가 존재하는데, 독일의 경우 해외송금 또는 해외로부터의 송금 시 일부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외환 규제

독일의 경우, 해외송금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 시 대외경제규정(AWV-Aussenwirtschaftsverordnung) 67조 1항에 의거해, 12,500유로 이상의 해외 송금은 독일연방은행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2013년 9월 1일 발효된 대외경제규정에 의하면, 기업, 은행,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직접 독일 연방은행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서면을 통한 신고를 받지 않고, 전자 보고서 양식을 필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독일 연방은행의 신고 포털사이트 : <https://extranet.bundesbank.de/bsvpub/changeLanguage.do>)

EU 역내 거래일 경우에는 5만 유로 이상을 보고 대상으로 한다. 이 보고는 원칙상 금융 거래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이 이를 대신한다. 보고 양식은 독일 중앙은행이 제공하며, 해외발 국내 입금인 경우와 해외향 송금인 경우에 대해 각각 Z4와 Z1 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서식에는 송금계좌와 수취인 계좌 및 계좌 소유자의 이름, 주소, 송금 목적 등이 기재된다.

한편, 제품 수출입 관련 자금 및 해외대출 자금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 입출금의 경우 독일 자금세탁 방지법(GwG)에 의거해 15,000유로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출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입출금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는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약 8,279만 명(2018년 3월 확인 최신정보)이며 독일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다. <자료원 : 독일 통계청>

소비 성향

독일의 연간 GDP 규모는 2018년 기준 4조 2,116억 유로에 달하며 2017년도 대비 14.3% 증가했다. 독일인들은 'Made in Germany'의 제품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내수시장이 활발했다. 독일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다. 8,279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독일은 유럽 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 시장은 대체로 자유시장원리가 지배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및 자국 산업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Medica, Hannover 산업 박람회, Automechanika 등의 대형 전시회를 개최하는 국가로, 국제 교역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EU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일은 유럽 경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노동시장의 비유연성과 세금 및 신규 사업 확립에 있어 과도한 규제, 높은 사회보장비용 등은 정부 차원의 다방면 제도개혁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독일 산업의 주된 분야는 자동차, 기계, 화학, 첨단 기술 분야이며 주요 제조기업은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겨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다.

독일 시장에 진출 시 기술 혁신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고품질 제품으로 독일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다. 독일 시장은 IT, 전기, 전자, 건강, 의료, 합성소재, 자동화 기술 등 기술 혁신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편이며, EU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는 중이다. 오랜 분권 국가의 경험으로 인해 각 시장이 지역별 특색에 따라 분권화돼 있으며,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 등 제품 구매 시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진국 제품이나 인지도가 낮거나 비 유명상표 제품이라 할지라도,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앞선다면 시장 진입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소비자 동향을 살펴보면, 독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제품 소비 및 구매 성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독일 사회의 노령화와 저출산, 사회 및 가족 구성원 구조 변화, 일하는 여성의 증가, 이동성 증가는 제품의 소비 경향을 바꾸었다. 건강, 편리함, 지속성이 소비 시 가장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 제품과 웰빙제품에 대한 관심 또한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이제 현상을 넘어 일상이 됐다. 오프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구매, 제품 가격 및 품질 비교를 통한 합리적 구매, 제품의 배송으로 인한 구매 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온라인 구매는 독일에서도 널리 이용되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독일 E-Commerce 시장은 2000년 이후 10~20% 고성장 중이며, 2018년 말까지 약 536억 유로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독일 E-Commerce 시장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시장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했다. 독일 유통업체들의 E-Commerce 시장을 통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77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2018년도 대비 약 43.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과에 힘입어 IT,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품목에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해 성공가도에 있는 삼성, LG, 현대, 기아 등 한국 대기업들의 경우, 주력 분야의 브랜드 가치 및 상품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제품 전반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과 애플 브랜드가 1, 2위를 다룰 정도로 독일 시장 내 인지도가 높은 제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독일 바이어들은 가격 및 품질 외에도 여전히 신뢰를 중시하며 기존 거래처를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한국 상품이 기존의 시장 진출 제품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대기업 제품의 선전과 히든챔피언의 제품 우수성으로 한국 제품은 주목받고 있다. 독일 1위 대형 유통망 업체인 METRO가 한국 상품 구매 상담회인 유럽 비즈니스 워크 2013에 내한해 소형가전, 생활용품 거래선 확보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진입 장벽이 높아 국내 기업의 접근이 어려웠던 유럽시장이 불황을 계기로 우리 기업에 문을 열고 있으며, 유럽 대형 바이어들은 경제위기 이후 2013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아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국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격경쟁이라는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다른 제품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중국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라

일반적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아시아산 제품이면 중국산을 많이 연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품질 등에서 우월하다는 부분을 강조 및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가 선호 경향이 강해 중국산과의 단순 비교 시, 비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므로 제품의 사양, 성능, AS 등 중국산보다 우월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신용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금융 부문의 취약성 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파악이 필요하다. Unicredit Bulbank, Raiffeisen bank, First Investment Bank, Post bank, UBB 등 비교적 건실한 은행과의 거래 유도는 매우 중요하다.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원자재 수출 또는 대형 설비 수출의 경우 바이어에 대한 사전 신용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어의 신용도에 따른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보험 상품 가입 시 혹시 모를 바이어의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3) 현지 비즈니스 관행 이해 필요

유럽에서 통용되는 품질 인증(규격 인증 포함), 즉 CE 마크를 획득 필수이다. (*주요 인증제도 참조) 불가리아 수입업체들은 소량 수입·판매하는 거래 관행에 익숙해져 있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 업체가 요구하는 최소주문량(MOQ)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규모 및 구매력 등을 고려해 최소주문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식 오더 이전에 샘플 공급 및 판매를 통해 바이어의 역량을 평가하고 사전 시장조사를 진행한 다음,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오더 물량의 수준을 가늠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4) 결제조건 제시

우리나라 업체는 대부분 T/T in advance 조건이나 L/C(신용장) at sight(일람불)를 요구하고 있으나, L/C 개설에 따른 서류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개설에 따른 은행 수수료가 발생해 현지 업체들이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T/T 결제를 선호하며, 현지 관행상 선금 30%, 선적 후(선적서류 사본 송부 후) 70%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품에 따라 50% 대 50% 또는 30% 대 60% 그리고 나머지 잔금 10%를 물건 검수 확인 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전 송금 및 잔액 도착 시 지불 등 결제조건에 대해 보다 신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과 선물

공식적인 미팅에서 정장은 특히 초면이나 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적이다.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평상복 차림도 무난하며, 공장 방문일정이 있거나 공장 관련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에는 완벽한 정장 차림보다는 노타이 등 세미 정장이 더 적합하다. 불편화대 있지 않으나, 부담이 없는 선물을 사전에 준비해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의할 점은 좀처럼 비즈니스 파트너를 집에 초청하지 않기에, 만약 초청한다면 무난한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예의이다. 1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상사나 내부 compliance

department에 보고해야 해야 하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약 2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된다. 한국 전통제품이 선물로 10유로 이내의 한국차, 전통 무늬 기념품, 태극무늬 부채, 열쇠고리, 장식품 등은 부담이 없으면서도 특색 있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10유로 이하인 레드 와인 한 병 정도가 적당하다. 향수나 의류, 50달러 이상의 선물, 특히 양주나 고급 선물 등은 뇌물의 성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꽃 선물은 포장하지 않고 홀수로 하되, 13송이를 선물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 아울러 선물을 포장할 때 흰색, 검은색, 갈색 포장지는 장례식을, 장미는 구애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선물은 가급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푸는 것이 예의로 받아들여지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 받는 이가 자신의 선물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선물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쁜 표정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물을 주는 시기도 중요하다. 협상이나 방문의 마지막 단계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사와 호칭

공식적인 만남에서 인사는 남녀불문 악수하며 손을 힘차게 잡고 눈을 맞추며 한다. 악수할 때, 다른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는 안 되며 등 뒤로 가게 하면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 여성과('Ladies first') 먼저하고, 상급자와 한다. 여성이 악수를 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호칭할 때 이름이 아닌 성을 부르며, 성 앞에 Herr (Mr.) 또는 Frau(Ms./Mrs.)를 붙이고,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Herr/Frau Dr. Meier 또는 Herr/Frau Prof. Dr. Meier 등으로 직함을 꼭 넣어주도록 한다. 직함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칭하는 것은 큰 실례이다. 독일어로 진행할 경우에는 '당신(Sie)'을 사용하고, 친한 동료사이에서도 회의석상 혹은 외부인이나 상관 앞에서는 성이나 공식직함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

3) 대화와 제스처

첫 대면에서 스몰토크(Small Talk)보다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치'나 '히틀러' 시대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은 삼가야 한다. 독일은 19세기 시인 호프만의 3절짜리 '독일의 노래'를 가사로 써왔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를 폐지했다가 1990년 통일 이후 제3절만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 2절은 피해야 한다. 또한, 이슬람 등 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독일인이 많다. 임금 또는 수입이나, 나이, 결혼 여부, 병, 체중(특히 살이 찼다는 등), 신장 등, 개인적인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금물이다. 중간간부 이상이면 대부분 석사, 박사학위 소유자이며, 미팅 시간 내에 협의를 마치려고 한다. 독일인들은 '눈치' 또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잘 통하지 않는다. 파트너의 실제 의도 등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악수 외 어깨를 가볍게 치는 등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대화 도중 상대에게 손을 대거나 살짝 치는 행동은 상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다. 중지를 위로 세우기, 검지로 머리 뒷부분 옆쪽을 톡톡 치기, 손바닥을 얼굴 앞에 두고 흔들기 등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코가 막힌 경우 들이마시거나, 과도한 감정 표현, 대화 중에 수시로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코나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웃을 때 손을 가리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만취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는 것을 큰 실례이다.

4) 식사예절

업무상 식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독일인들은 식사예절을 상당히 중시한다. 식사 매너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찹찹 거린다거나, 후룩거리며 마시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크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입에 음식을 넣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술이나 물을 따를 때 잔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대방 잔을 대신 채워주는 행위는 예의에 어긋나며, 음식이나 술 등을 권할 때도 한 번 권해서 'No'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식탁에서 코를 푸는 행위는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성과 동행했다면 오른쪽 좌석에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뒤로 빼주고, 함께한 모든 여자 손님이 앉은 후 착석한다. 식사 도중 손목은 무방하지만, 팔꿈치를 올려선 안 되고, 팔짱 끼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등은 금물이다. 아울러 업무 관련 대화는 자제하고 식사 후 하는 것이 좋다. 주최자에게 모든 결정권(예를 들어 와인에서부터 식사메뉴, 대화 주제 등)을 주는 것이 좋다. 건배 시에는 '프로스트(Prost)!' 또는 '춤 볼(Zum Wohl)'이라고 함께 외치고, 주최자가 건배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변속기 부품 수출 성공사례

H사는 전기차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기어류, 치절부분 가공을 위해 전폭적인 기술적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독일, 일본제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현지에서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독일어 가능한 엔지니어를 배치하여 독일 바이어들의 신뢰를 받은 것이 큰 몫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KOTRA의 글로벌 파트너링사업(GP)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GP 사업은 글로벌 기업들의 부품 수요를 파악한 후 적합한 한국 중소기업을 찾아 매칭시킨다는 점이 기존 KOTRA 지원프로그램과 다른 점으로 성사율이 높다. 따라서 시장진출을 위해서 GP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2) 마스크팩 수출 성공사례

유독 독일인들은 유기농 제품을 선호한다. A사는 이런 점 살려 쌀, 콩, 동백, 자스민, 어성초 등 식물성 추출물 등 유기농 성분만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화장품 관련 제품은 CPNP 등록과 인증획득이 유럽 및 독일 시장 진출에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A사는 시장 진출 전 관련 인증을 모두 획득하였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주최로 개최된 유통망 사업을 통해 홈쇼핑채널 담당자와 미팅을 갖고 현장에서 제품을 체험해보도록 했는데 이 점이 시장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2005년 1월 1일부터 한-독 간의 '입국 및 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인은 독일입국 후 사증을 취득할 수 있다. 3개월을 넘어서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 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일반체류허가는 기간형과 무기한형으로 나뉜다. 대부분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2년 기간인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받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아래 조건의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형 일반 체류허가가 교부된다.

2) 유학생 비자

유학생 비자의 최초 교부 체류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 교부된다. (대학 입학 지원용 비자는 최고 9개월이다) 이 체류허가는 연중 120일 취업이나 학생 아르바이트를 허가하고(240일의 반일 취업도 가능), 학업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18개월 체류허가(구직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에서 얼마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란이 된다. 각 주의 해당 외국인관청 또는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유용하다. 계속해서 독일에서 일하고자 계획할 경우, 별도의 출국 없이 유효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정식취업을 위한 체류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독일에서 직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로 독일에 들어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각될 확률은 아주 높으며, 사전에 독일에서 다른 체류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독일에서의 직접적인 신청이 허용된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는 만18~30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족 동반은 불가능하고,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 사진(1매, 3.5 x 4.5cm),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의료보험계약서, 체류 기간 내 배상책임보험(최소 30,000유로) 및 의료보험(사고와 질병 시 각각 최소 30,000유로), 신청 수수료이다. 취업증명서는 불필요하고,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한다. 1회만 가능하여 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경비로 USD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출국할 수 있으나, 독일로의 반입의 경우 또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EUR 10,000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10,000유로 미만을 반출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위반 시 독일 세관법 제31 b조에 의해 1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국 시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에 제한이 있다.

- 주류: 우선 주류 소유자는 만17세 이상이어야 한다. 알코올농도 22% 이상인 경우는 1리터, 또는 22% 이하인 경우는 2리터가 통관

기준이다. 일반 와인은 4리터, 맥주는 16리터까지 허용된다.

◦ 담배: 소유자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담배(cigarette)는 200개비, 시가(cigar)는 50개비, 시가릴로(cigarillos)는 100개비, 기타 담배류는 250g까지 면세된다.

◦ 여행 중 사용할 물품도 보석, 전자제품 등 고가 물품의 경우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의 경우 총액 430유로 이하(육로 여행객은 300유로 이하)만 면세대상이고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만15세 미만의 경우 175유로 이하만 인정된다.

◦ 여행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적당량 의약품(의사의 영문 처방전 및 소견서 지참)은 허용되나 일부 식품(감자, 육류, 우유, 유제품, 계란 등)은 반입불허 품목이다.

불법 마약류, 허가가 필요한 무기류 및 탄약, 폭죽 등, 필요한 분량 이상의 식품, 약품, 음란물,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도서 출판물, 불법 복제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경우에도 같다.(애완동물의 경우 개체인식시스템을 요구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및 수의검역문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국가 간 이동 시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독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49 (0)30 260 65 43 2/3/4
주소	Stuelerstrasse 8-10, 10787 Berlin, Germany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de-ko/index.do
비고	이메일: cons-ge@mofa.go.kr

○ 주 프랑크푸르트 영사관

전화번호	+49 (0) 69 956752 0
주소	Lyoner Strasse 34, 60528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de-frankfurt-ko/index.do
비고	이메일: gk-frankfurt@mofa.go.kr

○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 69 23 32 26
주소	Baseler Strasse 35 - 37 / 5. OG, 60329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http://german.visitkorea.or.kr/ger/index.kto
비고	이메일: kto@euko.de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 69 743487 0
주소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 한국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 69 920 713 00
주소	Bockenheimer Landstrasse 51-53,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https://www.kdb.co.kr/ih/simpleJsp.do

비고	이메일: frankfurt@kdb.co.kr
----	--------------------------

○ 재독한인 총연합회 프랑크푸르트

전화번호	+49 (0) 69 6150 76
주소	Hauptstrasse 336 65760 Eschbor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korean.net/portal/index.do

<자료원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한국은행 홈페이지, 산업은행 홈페이지, 코트라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독일 연방 국회

전화번호	+49 (0) 30 227 0
주소	Platz der Republik 1, 11011 Berli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bundestag.de
비고	이메일: mail@bundestag.de

○ 독일 연방 정부

전화번호	+49 (0) 30 18 272 0
주소	Dorotheenstrasse 84, 10117 Berli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bundesregierung.de

○ 헤센 룬드퐁크

전화번호	+49 (0) 69 15 55 111
주소	Bertramstrasse 8, 60320 Frankfurt, Germany
홈페이지	http://www.hr-fernsehen.de
비고	TV 방송사

○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전화번호	+49 (0) 69 7591 0
주소	Hellerhofstrasse 2-4, 60327 Frankfurt, Germany
홈페이지	http://www.faz.de
비고	신문사

○ 독일상공회의소(IHK)

전화번호	+49 (0) 30 20308 0
주소	Breite Strasse 29, 10178 Berlin, Germany
홈페이지	http://www.dihk.de

<자료원 : 각 정부 및 언론기관 홈페이지>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88Euro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87
2	식품	비빔밥	1인분	11.37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7.06
4	식품	신라면	1봉지	1.35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13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22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330ml	0.67
8	의료	항생제	12정	30.73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3.13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3.13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3.98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4.82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79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33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5.24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7.28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0.12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10.45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5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

<자료원 :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유로(Euro)로 통화기호는 € 약칭은 EUR이다. 1 유로는 100센트(Cent)이며 주화로는 1, 2, 5, 10, 50 센트(Cent) 및 1, 2유로가 있다. 지폐로는 5, 10, 20, 50, 100, 200, 500액권이 사용되고 있다. 200유로 및 500유로 지폐는 대부분 상점에서 잘 받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공용 화폐로 전면 도입,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 마르크화는 2002년 2월 28일까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환전방법

독일은 미국 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며 한화와의 환전은 어렵다. 환전 시 환전 수수료 또한 매우 비싸 미리 유로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환전은 공항, 기차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Wechselstube)에서 수시 가능하나,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과 시내의 은행(Reise Bank)이 가장 일반적인 환전장소로 이용된다. 신용카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수수료 면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2018년 11월 6일 기준 1유로당 달러 평균 환율은 약 1,309.50원이고, 환율 조회는 KEB 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에서 가능하다. 유럽의 다른 국가 통화로 유로화를 바꿀 경우에도 독일보다는 해당국에서 환전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 이용

독일의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이나 점점 더 많아지는 편으로, 인터넷결제의 경우에는 많이 이용된다. 고급 호텔, 고급 식당, 쇼핑센터나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상점, 슈퍼마켓, 시장, 일반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때도 많다. 특히 도시 지역을 떠나면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독일인들은 대부분 현금이나 직불카드(EC-Card) 사용을 선호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경우 환전한 현지화가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율에서 유리하다. 대중교통의 경우 역에서 구입할 때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스나 전철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 고속철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승무원을 통해 기차 안에서도 할 수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독일과 같이 인구의 분포가 고르게 퍼져 있어서 어느 한 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지 않으며, 교통 정체 또한 그다지 심하지 않으나 대도시 일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할 경우가 많다. 독일에는 전차(Straßenbahn), 지하철(U-Bahn), 기차, 버스, 택시 등이 주요 교통수단이며, 간혹 부퍼탈(Wuppertal)처럼 모노레일(Schwebebahn) 기차도 있다.

독일의 대중교통은 모두 정거장(Haltestelle)에 시간이 명시돼 있고, 대도시의 경우 디지털안내기로 잔여 대기 시간이 표시된다. 많게는 7~8분에 한 대씩, 적게는 20분에 한 대씩 운행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30분~60분 간격으로 1대가 운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승차권은 한 장으로 목적지까지 몇 번이든 갈아탈 수 있으며, 이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은 정거장의 자동판매기(Automat)에서 사거나 전철과 버스에서는 운전기사에게 살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도시마다 차이는 있으나 첫 번째 승차한 교통수단 안의 소인기(Entwerter)에 넣어 스탬프를 찍게 되면 사용을 시작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운전기사에게서 구입한 경우는 소인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만약 스탬프를 찍지 않으면 무임승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검사원이 간헐적으로 검사하는데, 발견되면 6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많은 정기권이 있는데 가장 통상적으로 쓰이는 정기권은 한 달 정기권(Monatskarte)이며 프랑크푸르트 한 달 정기권의 경우 2018년 기준 약 90유로다. 1일권(Tageskarte) 경우, 1일 24시간 내 여러 번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지역마다 상이하나 보통 교통수단의 2~3회 정도의 가격으로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경우 9.55유로이다. 학생, 견습생(Azubi), 65세 이상 노인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페라나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티켓에는 행사장과 집의 왕복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중 결제가 안 되게 주의
를 요한다. 자가운전의 경우 고속도로는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가 없고, 원칙적으로 속도 제한이 없으나, 공사 구간(60~100km/h), 커브
구간이나 시내 부근(100~130km/h)의 경우 속도 제한이 있다. 추월할 경우 반드시 좌측으로 추월해야 하며, 1차선을 달릴 경우 뒤 차가
빠른 속도로 접근할 경우 2차선으로 피해야 한다. 시내 최고속도는 통상 50km/h이며, 골목길의 경우는 30km/h이다. 국도에서는
100km/h가 최고 속도인데, 마을이나 도시 팻말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50km/h로 제한된다. 교차로 등에서는 별다른 표지판이 없으면 우
측에서 오는 차가 우선권을 가진다(국내처럼 직선 차량이 아님). 프랑크푸르트 시내와 인근의 경우 도시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잘 정비
되어 있으나 구간별 정비공사가 자주 있는 편이고 비스바덴-프랑크푸르트 구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이 도심 진입 구간에서는
심하다.

버스

시내버스는 쾌적함과 안전함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버스가 Benz사의 고급기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시간에 발착
함은 물론이고 버스 운전사도 한국에 비해 매우 안전하게 운전하는 편이다. 그러나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여름에는 주의를 요한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두 대의 차량이 연결돼 있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요금은 구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경우 구역에
따라 기본도심구역인 경우 요금은 성인 기준 2.75 유로이다. 세 정거장 미만의 거리인 경우에는 1.85 유로로 이용할 수 있다. (한 정거장
의 거리는 대체로 우리나라 버스 정거장의 1/2~2/3 정도의 거리이다.) 상세한 요금은 www.rmv.de/c/de/start/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교통수단별 요금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적정 교통편을 찾아주는 길 안내 기능도 있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독일 내 고속버
스(Frenbus)의 경우는 1935년부터의 독일 철도청의 독일 대중교통 독점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여객 및 차량운송법이 개정 이후 풀려
서 이제야 점차 활성화되어가는 중이다. 플릭스버스(Flixbus), 유로라인(Eurolines) 등이 있고 저렴하게 도시 간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운행
시간은 아직 간헐적이다. www.busliniensuche.de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독일 버스의 최고 속도는 100km이다.

버스를 임차하는 경우 독일 버스 운전사는 1일 9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며, 1주 2일은 1일 10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1주일
56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며, 2주일간 90시간 운전을 할 수 없다. 버스 운전사는 4시간 반 운전을 할 경우 45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버스 이동이 끝나면 버스 운전사는 하루에 최소한 1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하며, 이 중 버스에 시동을 걸 수 없다. 2주 3번은 휴식시간
을 9시간으로 줄일 수는 있다. 이 모든 시간 규정은 버스 내 전자기기가 기록하며, 법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버리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택시

택시는 도시 번화가, 중앙역, 공항, 주요 호텔, 대학가 등에 택시 대기 구역을 제외하고는 예약방식이나 호출 방식으로 운행된다.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한국과의 차이이다. 호출의 경우 많은 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면, 패밀
리밴 등 큰 차를 불러줄 것이다. 탑승할 어린이 승객의 경우 유아용 카시트는 승객이 준비해야 하고 12살 미만이거나 신장이 150cm가 안
되면 카시트가 없는 경우 택시는 승차를 거부한다. 최근에는 택시 앱(My taxi 등)을 통해 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다. 호출 후 10분에서
15분의 대기시간 안에 택시가 오는 편이다.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되며 기본요금은 3.50유로이다. 이동 거리가 15km 미만일
때에는 킬로미터당 1.75유로, 15km 이상일 때는 킬로미터당 2유로씩 계산된다.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까지 2018년 11월 기준
약 29유로 소요) 택시 전화는 069 23 00 01, 069 733030, 069 23 0001, 069 24 24 60 24, 069 55 88 00, 069 68 68 68, 069
20304, 069 73 30 30, 069 48 0000 48 등 회사별로 다른 번호를 가진다. 예약을 할 경우에는 한국인 택시운전자를 찾아볼 수도 있다
.

다. 통신

핸드폰

시내 전화를 회사나 집에 놓을 때는 관할 전화국이 아닌 통신회사(O2, Vodafone 등)에 신청해야 하는데, 전화를 놓으려는 건물에 해당
통신사의 통신선이 가설되어 있는지부터 체크되는 등 가입 시 절차가 2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집 계약 시 집주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
화 통신회사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 돼 이동전화만으로도 큰 불편이 없으나, 인터넷을 집에 설
치하려면 전화 통신선이 가설되어 있어야 한다.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기 사용료(후불)를 지불하거나 선불 충전카드(USIM)를 사서 이용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불 충전카드의 경우 가입이 필요없고, 상점에서 USIM 카드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후불방식보다는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시내 곳곳에 통신회사 지점들이 위치해 있으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원하는 서비스(전화, 인터넷, TV)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한 구비 서류로는 여권(Pass), 거주지 등록증(aktuelle Meldebescheinigung), 은행 현금카드(Bankkarte), 이메일 주소(E-Mail Adresse)가 필요하다. 핸드폰 신청 후 반나절쯤 후(대략 3시간)에 개통된다.

인터넷(와이파이)

대부분의 통신업체들이 인터넷+유선전화+핸드폰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개설의 경우 유선전화번호는 필수로 주어진다. 패키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20~80유로 정도이다. 인터넷 가입 및 개설을 위해 유선전화도 가설해야 할 경우 2주 정도가 소요되거나 이미 가설되어 이용하는 중이라면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가 바로 테스트 되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도중에 해지할 경우 해약 고지 기간 3개월 후에 해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독일에서의 체류를 말소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으나 체류 2주 전에만 해지할 수 있다.

라. 관광명소

○ 잘부르크 로마요새(Saalburg Roman Fort)

도시명	Bad Homburg
주소	Am Roemerkastr 1, 61350 Bad Homburg
운영시간	○ 3월~10월: 월~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11월~2월: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휴무일	11월~2월(월요일 휴관)
명소소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고대 로마의 요새이다. 번잡함을 떠나 고대 로마의 성곽 등이 발굴되어 보존되어 고대유적 공원을 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입장료는 7유로이다. 계절에 따라 요일별, 개방시간이 달라짐에 주의를 요한다.
비고	전화: +49 (0) 61 75 9374 0 홈페이지: www.saalburgmuseum.de

○ 괴테 생가(Goethe Haus)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rosser Hirschgraben 23-25, 60311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월~금 :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명소소개	괴테의 유년기, 소년기를 보낸 곳으로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짧은 시간에 큰 울림을 주는 시내명소이다. 입장료는 7유로이고 아이 동반 가족은 10유로이다.
비고	전화: +49 (0) 69 138 800 홈페이지: www.goethehaus-frankfurt.de

○ 파울 교회 및 구시가지(St. Paul Church)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Paulsplatz 11, 60311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월~금 : 오전 10시~오후 5시 주말 : 오전 10시~오후 5시
명소소개	1848년에 독일의 첫 의회가 소집된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괴테 하우스에서 300m 거리에 있으며 입장 은 무료이다. 인근에 100m 범위안에 신성로마제국 대관식이 열리던 13세기 건축물인 카이저돔(frankfurt cathedral)과 축구 우승 등 시민행사가 열리는 뢰머광장(Roemer)가 있고 바로 옆 라인 강에는 사랑의 자물 쇠가 걸려있는 아이제너 다리(Eiserner Steg)가 있다.
비고	전화: +49 (0) 69 212 34920

○ 슈테델 미술관(Staedelsches Kunstinstitu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Schaumainkai 63, 60596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화~수 및 주말 : 오전 10시~오후 6시 목~금 : 오전 10시~오후 9시
명소소개	아이제너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800m 강가에 위치해 있다. 안반에이크, 모네, 드가, 르느와르, 렘브란트 등 부터 피카소, 샤갈, 뭉크에 이르기까지 14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가의 작품들을 소장한 유럽에서 손 꼽히는 미술관으로 티슈바인의 괴테 그림으로도 유명하다. 입장료는 주중 14유로 주말 16유로, 가족은 24유로이다.
비고	전화: +49 (0) 69 138 800 홈페이지: www.staedelmuseum.de/de

○ 쟈켄베르크 자연사박물관(Naturmuseum Senckenberg)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Senckenberganlage 25, 60325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 오전 9시~오후 5시 수 :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 오전 9시~오후 6시
명소소개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박물관에는 30m 크기의 공룡 뼈 화석 및 복제품이 전 시되어 있다. 입장료는 10유로, 가족티켓은 25유로이다.
비고	전화: +49 (0) 69 75 420 홈페이지: http://www.senckenberg.de

○ 로렐라이 언덕(The Lorelei)

도시명	Goarshausen
주소	Auf der Loreley, 56346 Strasse Goarshausen
운영시간	연중 무휴

명소소개	로렐라이가 속한 지역인 라인 강 중상류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지정되었다. 로렐라이까지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차량 이동으로 1시간 20분 거리이다. 매년 2백만 명이 중간에 위치한 뤼데스하임(Rudesheim)을 방문하여 그 경치를 누린다.
비고	전화: +49(0) 62 21 53 84 72 홈페이지: www.loreley-besucherzentrum.de/home/

○ 하이델베르크 성(Heidelberg Castle)

도시명	Heidelberg
주소	Schlosshof 1, 69117 Heidelberg
운영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6시
명소소개	독일에서 제일 방문객이 많은 명소 중에 한곳으로 차나 고속철(ICE)로 1시간 거리이다. 거대한 포도주 통은 세상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17세기에 완성된 정원에서 내려다 보는 전경 또한 유명하다. 입장료는 7유로(내부), 성의 정상과 정원은 무료이다. 정상까지는 개인차량으로 이동, 또는 아래 주차장에서부터 모노레일을 왕복 2유로로 이용하여 갈 수 있다.
비고	전화: +49 (0) 62 2153 84 72 홈페이지: www.schloss-heidelberg.de/

○ 마인 타우누스 쇼핑몰(Saalburg Roman Fort)

도시명	Sulzbach
주소	Am Main-Taunus-Zentrum 1, 65843 Sulzbach
운영시간	월~토: 오전 9시30분~오후 10시
휴무일	일요일 휴관
명소소개	시내에서의 쇼핑몰인 갤러리아(Galeria kaufhof)나 자일(Zeil)과는 다른 북적거리는 쇼핑 거리를 방문하려 할 때 가보면 유용한 곳이다. 중앙역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가족 단위나 연인 단위 방문객들이 많다. 늘어서 있는 쇼핑의 거리와 식당들 사이를 오고 가는 모습도 이채롭다. 3시간까지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kidsclub 오후 1-7시)도 유료(홈페이지참조)로 운영된다.
비고	전화: +49(0) 69 300 90 169 홈페이지: www.main-taunus-zentrum.de

<자료원 : www.goethehaus-frankfurt.de,

[https://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17578_ffmpar\[id_inhalt\]=5021017,](https://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17578_ffmpar[id_inhalt]=5021017)

[http://www.senckenberg.de/root/index.php?page_id=5247,](http://www.senckenberg.de/root/index.php?page_id=5247) [whc.unesco.org/en/list/1066,](http://whc.unesco.org/en/list/1066) <https://www.frankfurt-rhein-main.de/en/Discover-Experience/Sightseeing-Attractions/UNESCO-Heritages/UNESCO-world-heritage-Saalburg-museum>>

마. 식당

- 현지식당

○ 와인슈투베 임 뢰버(Weinstube im Roeme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91331
주소	Roemerberg 19, Frankfurt am Main
가격	10~30유로
영업시간	화~금: 오후 4시~오후 11시 토: 오전11시30분~오후 11시 일: 오전11시30분~오후 9시
소개	뢰머광장에 있는 독일 전통식당으로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비고	http://www.weinstube-roemer.de/

○ 세브레(Sevres(Hessischer Hof))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5400
주소	Friedrich-Ebert-Anlage 40, Frankfurt am Main
가격	45~100유로
영업시간	주중: 오전 6시30분~10시, 오후 12시~오후 2시, 오후 6시 30분~오후 10시 주말: 오전 7시~11시, 오후 12시~오후 2시, 오후 6시30분~오후 10시
소개	전시장(Messe) 길건너편 독일식 고급식당으로 조찬도 가능하며 예약과 드레스코드에 주의를 요한다. 애완동물은 동반금지다.
비고	www.grandhotel-hessischerhof.com/restaurant-sevres-frankfurt/

○ 와인하우스 브뤼켄켈러(Weinhaus Brueckenkelle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980070
주소	Schuetzenstrasse 6, Frankfurt am Main
가격	50~60유로
영업시간	문의 요망
소개	10명~250명의 단체가 식사와 이벤트를 할 수 있게 준비된 곳이다. 방문전 미리 예약과 문의가 필요하다.
비고	http://brueckenkeller.blogspot.com/

○ 애플바인 클라우스(Apfelwein Klaus)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19396 67

주소	Kaiserhofstrasse. 18-20, Frankfurt am Main
가격	6.5~16유로
영업시간	월~금 : 오전 11시30분~오후 2시30분, 오후 5시~오전 12시 토 : 오후 5시~오전 12시
소개	괴테하우스 10분 거리에 위치한 전통 독일 식당으로 100년이 넘었다고 하며 지하에 위치해 있다.
비고	www.apfelweinklaus.de

○ 모세바흐(Mosebach)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4930396
주소	Sandweg 29, Frankfurt am Main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오후 5시~오후 23시
소개	Zeile에서 400미터 떨어진 식당, 외진곳에 위치하나 주문 배달 서비스를 한다.
비고	www.lieferheld.de/ 라는 배달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아돌프 바그너(Adolf Wagne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125 65
주소	Schweizer Strasse 71, Frankfurt am Main
가격	10~30유로
영업시간	오전 11시~오전 12시
소개	전통식당으로 저렴한 식사도 가능하다. 예약없이 기다리며 분위기를 미리 즐기는 것도 좋은 식당이다. 슈테델 미술관에서 12분 거리에 있다.
비고	http://www.apfelwein-wagner.com/

○ 리스토란트 콜로세오(Ristorante Collosseo)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14386
주소	Moerfelder Landstr. 122, Frankfurt am Main
가격	6~25유로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2시30분, 오후 6시~오후 11시30분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피자부터 해산물요리까지 즐길 수 있는 이태리식당이다. 프랑크푸르트 남부역(Frankfurt Sued)에서 5분 거리이다.
비고	http://colosseo-frankfurt.de/

○ 가리발디(Garibaldi)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1997644
주소	Kleine Hochstrasse 4, Frankfurt am Main
가격	10~25유로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 30분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피자부터 쇠고기, 양고기요리까지 즐길 수 있는 이태리식당이다. 괴테하우스에서 600m 거리에 있다.
비고	www.garibaldi-frankfurt.de

○ 빌라 레온하르디(Villa Leonhardi)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6752810
주소	Zepplinallee 18,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메뉴 24.5유로, 13~36유로
영업시간	화~토: 오후 12시~오후 3시 목: 오후 6시 30분 일: 오후 12시~오후 5시
소개	시내공원에 위치해서 외곽의 식당같은 분위기에 적당한 가격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이태리식당이다.
비고	http://www.villa-leonhardi.de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식당 홈페이지>

- 한국식당

○ 바첸하우스(Batzenhaus)

도시명	Bad Soden (Taunus)
전화번호	+49 (0) 6196 23430
주소	Knoenigsteiner Strasse 157, Bad Soden (Taunus)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월~금: 오후 12시~오후 2시30분, 오후 6시~오후 11시 토~일: 오후 12시~오후 3시, 오후 6시~오후 11시
소개	인근 타우누스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25분, 대중교통 40분이상 걸리는 거리이며 단체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호텔겸 한식당이고 주말점심은 부페가 제공된다.
비고	http://www.batzenhaus.com/

○ 가야(Hotel Gaya)

도시명	Bad Soden/Ts
전화번호	+49 (0) 6196 9214431
주소	Odenwaldstrasse 5, Bad Soden/Ts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점심: 12시~오후 2시 30분, 저녁 오후 6시~10시 30분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 22분, 대중교통(S-Bahn 3) 30분
비고	http://www.gaya-hotel.de

○ 스시마루(Sushimaru)

도시명	Eschborn
전화번호	+49 (0) 6196 6546045
주소	Hauptstrasse 82, Eschborn
가격	5~20유로
영업시간	월~토: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30분~오후 10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인근 에쉬본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16분, 대중교통(S-Bahn 4) 16분의 거리이고 일식을 겸한 한국식 식당이다.
비고	https://www.sushimaru.de/

○ 미소(Misho)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77 89647
주소	Adalbert Strasse 13,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월~목: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오후 6시~오후 10시 금: 오전 11시30분~오후 3시, 오후 6시~오후 11시 토: 오후 12시~오후 3시, 오후 6시~오후 11시

소개	메세인근 한식당으로 전시장(Messe)에서 도보 15분 거리(1km), 중앙역에서 차량, 대중교통 14분 거리(2km)에 위치하였고 특히 점심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한식당이다.
비고	www.facebook.com/pg/FrankfurtMisho/about/?ref=page_internal

○ 서울푸드(Seoulfood)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0168645
주소	17 Weserstrasse Innenstadt, Frankfurt am Main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월~금 : 오전 11시~오후 2시
소개	중앙역에서 도보 6분 거리(400m)에 위치한 한국식 분식집 메뉴가 있는 저렴한 한식당이며 점심식사에 특화되어 있다.
비고	https://www.koreanfood.de/

○ 미스터 리(Mr. Le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51198
주소	Gutleutstrasse 153,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일~월 :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30분~오후 10시 30분
휴무일	토요일 휴무
소개	중앙역에서 도보 9분 거리(750m)에 위치한 전통 한식의 맛을 추구한다.
비고	www.facebook.com/MrLeeFrankfurt/

○ 코코(Coco)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2034786
주소	Grosse Eschenheimer Strasse 41, Frankfurt am Main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월~금: 오후 12시~오후 3시, 오후 6시~오후 10시 토: 오후 12시~오후 10시
소개	중앙역에서 도보로 16분(1,5km) 떨어져 있으나 쿠테하우스에서 8분 거리(650m)로 구시가지관광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가격도 저렴하다.

비고	http://www.coco-restaurant.com/
----	---

◦ 강남(Restaurant KangNam)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6611 3939
주소	Lyoner Strasse 44-48, 60528 Frankfurt am Main
가격	20유로 선
영업시간	월~금 :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30분~오후 10시 30분 토 : 오후 5시 30분~오후 10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인근(400m)에 위치한 한식부페 음식점으로, 중앙역에서 차량, 대중교통 15분 거리(5km)로 단체식사가 가능하다.
비고	홈페이지 운영 안 함

◦ 산마루(Sanmaru)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5112750
주소	Ginnheimer Landstrasse 183, 60431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화~일: 오후 12시~오후 3시, 오후 6시~오후 10시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 16분, 대중교통(Tram 16) 22분의 위치에 떨어진 산마루 호텔안에 위치한 한식당이다.
비고	http://www.frankfurthotels24.com/ko/property/sanmaru.html

◦ 소나무(Sonamu)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0437250
주소	Berger Strasse 184, 60385 Frankfurt am Main
가격	10~30유로
영업시간	화~일: 오후 12시~오후 11시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으로 19분,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이고 주차장은 외부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 도모(Domo)

도시명	Kronberg im Tanus
전화번호	+49 (0) 61 7378898
주소	Westerbachstrasse 23, Kronberg im Tanus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료 15~30유로
영업시간	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오후 6시~오후 11시
소개	인근 타우누스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21분, 대중교통 25분 거리이고 주차장은 무료이다. 점심 식사가 저렴하고 중국식을 겸한 한식당이다.
비고	홈페이지 운영 안함

○ 하이데크룩(Heidekrug)

도시명	Oberursel (Taunus)
전화번호	+49 (0) 6171 971 60
주소	Koenigsteiner Strasse 30, 61440 Oberursel (Taunus)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료 15~30유로
영업시간	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30분~오후 10시 30분
소개	인근 타우누스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26분, 대중교통 35분 이상 걸리는 거리이며 점심식사가 저렴하고 저녁식사는 숯불구이나 전골식사가 제공되고 주차장이 넓다.
비고	http://www.heidekrug.com/

○ 파더스(Fathers)

도시명	Schwalbach
전화번호	+49 (0) 6196 9216826
주소	Feldstrasse 10, 65824 Schwalbach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료 15~30유로
영업시간	월~일: 오후 12시~오후 2시, 오후 6시~오후 9시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 20분, 대중교통 28분 거리
비고	https://www.facebook.com/pg/fathersfrankfurt/posts/?ref=page_internal

○ 고궁(Gogung)

도시명	Steinbach/Ts.
-----	---------------

전화번호	+49 (0) 6171 70370/79451
주소	Bahnstrasse 28, Steinbach/Ts.
가격	점심 1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 20분, 대중교통 27분 거리
비고	http://www.hotel-steinbach.de/de/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식당 홈페이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그랜드 호텔(Grand hotel Hessischer Hof)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Friedrich-Ebert Anlage 40, 60325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5400
홈페이지	https://www.grandhotel-hessischerhof.com/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322유로, 2인1박 345유로, 조식 별도 35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3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5성급 호텔

○ 매리어트 호텔(Marriott Hote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amburger Allee 2-10, 60486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955 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fradt-frankfurt-marriott-hotel/?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319유로, 2인 1박 334유로, 조식 별도 30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4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5성급 호텔

○ 마리팀 호텔(Maritim Hotel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	-------------------

주소	Theodor-Heuss-Allee 3, 60486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578 0
홈페이지	https://www.maritim.de/de/startseit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19유로, 2인 1박 243유로, 조식 별도 25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4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5성급 호텔

○ 뢰빈픽 호텔(Moevenpick Hotel Frankfurt City)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Den Haager Strasse 5,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88 0750
홈페이지	https://www.movenpick.com/en/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37유로, 2인 1박 264유로, 조식 별도 25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7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4성급 호텔

○ 카프리 바이 프레이저 프랑크푸르트(Capri by Fraser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Europa-Allee 42,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1338877888
홈페이지	https://frankfurt.capribyfraser.com/en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300유로, 2인 1박 300유로, 조식 별도 18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13분, 대중교통 20분 거리이다.
비고	4성급 호텔

○ 마이니저 호텔(MEININGER Hotel Frankfurt/Main Mess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Europaallee 64,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40159052
홈페이지	https://www.meininger-hotels.com/de/hotels/frankfurt-main/hotel-frankfurt-mess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34유로, 2인 1박 244유로, 조식 별도 9,90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9분, 대중교통 20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플레밍스 익스프레스 호텔(Flemings Express Hotel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Poststrasse 8, 6032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73910
홈페이지	https://www.flemings-hotels.com/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152유로, 2인 1박 186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3분, 대중교통 11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호텔 모노폴(Hotel Monopo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nnheimer Strasse. 11,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27370
홈페이지	https://hotelmonopol-frankfurt.com/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70유로, 2인 1박 270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6분, 대중교통 12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엑셀시어(Excelsio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nnheimer Strasse. 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56080
홈페이지	https://hotelexcelsior-frankfurt.d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184유로, 2인1박 213유로, 조식 별도 15유로
소개	중앙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6분, 대중교통 12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비엔비 호텔(B and B Hotel Frankfurt-Hbf)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inzer Landstrasse 80-84,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140190
홈페이지	https://www.hotelbb.d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111유로, 2인 1박 111유로, 조식 별도 8.50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전시장(Messe)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2성급 호텔

○ 호텔 어테치(Hotel Attach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oelnerStrasse 10,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59001 0
홈페이지	http://www.hotelattache.d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75유로, 2인 1박 325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3분 거리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비고	3성급 호텔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친구민박(Friends Pension)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uenchener Strasse 51, 6032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friendspension.net/
숙박료	2인실 기준 50유로, 식비 포함
소개	중앙역 도보 3분,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5분, 대중교통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욕실은 공동사용이고 3인실부터 개인욕실이 있다. 전시회 기간에는 요금을 미리 문의해야 한다.

○ 타향민박(Tahyang)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uenchener Strasse 55, 6032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min-bak.co.kr

숙박료	2인 1박 기준 90유로, 도미토리는 1인 1박에 35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도보 3분,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5분, 대중교통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2인실이나 도미토리 모두 화장실은 공용이다. 박람회 기간에 있을 경우 금액 조정여부를 미리 문의해야 한다.

○ 청수민박(Cheongsu)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uenchener Strasse 26, 6032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frankfurtt.com/
숙박료	도미토리식 1인당 19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도보 3분,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5분, 대중교통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욕실은 공동사용이고 도미토리식으로 1인실 및 2인실은 없다. 전시회 기간에는 요금을 미리 문의해야 한다

○ 아리랑 민박(Arirang)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uenchener Strasse 41, 6032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arirang-germany.com/
숙박료	1인1박 50유로, 2인1박 70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도보 3분,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5분, 대중교통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1인실과 2인실 및 도미토리가 제공되며, 취사가 허용된다. 박람회가 있을 경우 금액 조정되므로 미리 문의해야 한다.

○ 바움하우스(Baumhaus)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aiser Strasse 35, 6032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baumhausffm.modoo.at
숙박료	2인1박기준 130유로, 도미토리는 1인1박에 42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도보 5분,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7분, 대중교통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2인실이나 도미토리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박람회가 있을 경우 금액 조정되므로 미리 문의해야 한다.

○ 제이시앤블루 게스트하우스(JC and BLU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aiser Strasse 35, 6032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jcnblue
숙박료	메세기간 기준으로 2인1실 1박기준 130유로, 도미토리는 1인1박에 40~50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도보 6분,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7분, 대중교통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2인실이나 도미토리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박람회기간 있을 경우 조정된 금액을 주의해야 한다.

○ 벤치 민박(Bench)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ufnagel Strasse 32, 6032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theminda.com/Bench2017
숙박료	1인1박 49유로, 2인1박 58유로, 조식 불포함
소개	중앙역에서 S-Bahn으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Galluswarte역에서 5분거리고 전시장(Messe)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숙소 전체에 총 수용인원이 2인이라는 점에 주의를 요하고, 식사제공이나 취사가 되지 않는다.

○ 유로맘 하우스(Euromamhaus)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rxheimer Strasse 5, 6032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theminda.com/kimhwa0506
숙박료	1인1박 60유로, 2인1박 90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에서 Tram(11번,21번)으로 8 정거장 떨어져 있는 Wickerer Strasse 역에서 5분거리고 메세까지는 대중교통으로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1인실과 2인실 및 도미토리가 제공되어 있으나 개인실도 욕실 등은 공용이다. 유료로 공항픽업을 해준다.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경보 단계: 독일은 발령된 여행경보는 없는 국가이다. 독일은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사회가 안정돼 도난 등 범죄 발생률이 낮고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테러의 위험도 낮아 치안은 양호하다. 최근 대도시 등의 공항이나 역 주변은 소매치기 피해가 많은 편이며, 단체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 및 식당에서의 소지품 분실 사고가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 전체 거주자 중 자국민 대비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데 외국인유입자의 경우 사회적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안,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등 아랍계의 난민유입은 계속되고 있고, 터키계 등 서남아시아 거주자가 지난 50년간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금융가와 중앙역(Hauptbahnhof) 사이(Mainzer Landstrasse와 Kaiserstrasse 사이 거리)에 유흥가가 있으며,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한 무료 주사기와 마약을 배급하는 국영치료소도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구권, 터키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유흥을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해가 진 이후에는 가급적 이 근처를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경찰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 사고상황을 알리면 구급차, 소방차,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한다. 소방대원이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리고 구급대원이 이송 중에 현장보고서를 작성한다. 차량 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인명피해에도 형사책임은 면책이나 고의 중과실인 경우만 문제 된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하여 현장조서 작성에 이용할 수 있으면 좋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담당이 차량을 견인케 하는데 이때 운전자에게 견인될 정비공장을 문의하고 운전자가 추천하는 곳이 없으면 인근 견인장소로 견인되어 추후 처리하게 된다. 민사책임이 따르나,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사고유발운전자가 쌍방이 아닌 경우, 피해운전자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추천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 후 경찰의 현장보고서가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되고 이를 작성하여 사고유발운전자를 형사 고소할지를 정할 수 있으나 제한된 기간 내에 답신을 보내야 한다. 쌍방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것이 추천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전화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보고서를 작성해주며 이 현장보고서가 없이 여권분실을 2회 이상 신고하게 되면 여권을 불법거래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특정 국가(예를 들면 미국)는 비자 재발급에 있어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이나 체류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13.80유로의 수수료를 납부 후 2~3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6.44유로의 수수료 납부 후 당일 혹은 1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12
- 범죄 신고: 110
- 의료지원 : 112(앰블런스 서비스 포함)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독일 주택은 단독주택인 하우스(Haus)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인 보농(Wohnung)으로 나뉜다.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거나, 지역 신문의 주간별 주택광고를 보고 주택을 구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 (<http://www.immobilienscout24.de>)를 이용한다. 임차인은 자신이 선임한 중개업자에게 중계수수료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보증금(2~3개월분의 월세)과 부가가치세(19%)를 포함한 임대료의 2.38배에 해당한다. 인터넷중개사이트를 통해 임대인이 선임한 중개업자를 이용한 경우 임차인(또는 구매자)은 중개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2015년 1월 1일부터). 집 계약을 후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서 싱크대, 침대, 세탁기, 냉장고 등을 협의하여 저렴하게 인수(Uebernahme)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료와 보증금을 부담한다. 임대료는 순수 임대료(Kaltmiete)와 이에 부대 경비를 합한 총임대료(Warmmiete)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순수임대료는 평균 1m²당 월 16.43유로(원헨을 이어 독일 2번째로 높음, www.wohnungsboerse.net 2018, 11월 기준)이다. 부대 경비는 전년도에 비용을 평균으로 환산하고, 당해 년도의 비용을 예측해 미리 자동이체(Dauerauftrag)로 지급하고, 다음 해에 실질 사용 금액을 근거로 정산한다. 임차료는 계약 체결 1년 후부터, 해당 지역 '평균 임차료'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다. 아울러 임차료 인상의 상한선은 3년 내 20%이다. 집주인이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3개월 내로 인상을 승낙하거나 집을 비울 수 있다. 보증금(Gesetzliche Mietkaution)은 임차료 3개월 수준으로 현금으로 주인에게 지불하거나 임차보증금 통장을 주인에게 맡기는 식으로 한다. 주거은행에 임차계약을 제출하면 보증금 통장을 발급해준다.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손상에 대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2001년부터 계약서상 기간명시는 금지사항이고,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 통고일로부터 3개월의 여유 기간을 주어야 한다. 임차계약 체결에 요청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여권, 재직증명서(또는 학생증), 지난 3개월간의 소득증명서 등이다. 임대계약서상 불공정한 내용은 집주인과 세무사향을 조율하고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 합의 내용을 추가로 기록해 놓는 데, 이를 프로토콜(Protokoll)이라 하고, 작은 문제점, 작은 손상(열쇠 개수, 온수 사용 가능 여부, 곰팡이 존재 여부, 바닥 카펫 상태 등)도 명확히 쓰고 집주인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사진을 찍어두면 더욱 좋다. 특히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기돼 있을 경우, Protokoll에 기재 안 된 입주 전부터 존재하던 사항을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공제 단체인 Deutscher Mieterbund e.V. (<https://www.mieterbund.de/startseite.html>)에 가입해두면 권익 보호에 좋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새 임대인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에는 최소 3년 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임대인은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새로 임대하기 위한다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이 출산이나 중병 혹은 고령으로 인해 이사할 수 없을 경우는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세입자는 주택의 보존을 위해 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부엌, 욕조, 샤워실은 3년, 침실, 거실, 복도, 화장실은 5년, 기타 공간은 7년에 한 번씩 새로 페인트칠하고 수리해야 한다. 집을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은 거주자에게 있다. 눈이 내린 다음 날 집 앞 도로 눈을 치울 의무와 경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 위반 시 행정관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절대 휴식 기간(오후 1시~3시, 밤 10시~아침 7시)에는 부모는 아이들의 소음을 제재할 의무가 있다. 난방기간(10월 1일부터 4월 1일) 중, 임대인은 실내온도를 20~22도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난방기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즉시 임대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난방시간(6~24시) 동안 실내가 16~18도를 넘지 않을 경우 집세 인하(20~25%)가 가능하다.

전화

전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거주 지역의 전화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의 대부분은 Deutsche Telekom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저가통신의 경우 자사의 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고, 국제전화 할인 회선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인터넷 통신업체가 무선 전화, 유선전화와 인터넷 등을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제공한 상품을 이용하는 통신 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전화 개월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이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집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2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현지 변압기 구입이 비싸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특히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이 날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식수

물은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한다. 가정용 정수기는 필터식인 브리타(Brita)를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수도물은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현지인들은 수도물을 식수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문화이다.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신차의 경우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 및 옵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고차는 또는 중고차 전문 매장이거나,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나, 향후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개인 직거래 시 소비제품 판매법규(Vorschriften des Verbrauchsgüterkaufs)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거래법(Kaufrecht)'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간의 법정 개런티 적용을 받지 못하며, 또한 매매계약서에 'Das Kraftfahrzeug wird unter Ausschluss der Sachmangelhaftung verkauft'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구입 후 고장이 나도 법률상의 청구권한이 없으나, 위와 같은 문구가 없을 경우 마모로 인한 손상(Verschleiss-), 일반 사용(Abnutzung-), 차량의 노화로 인한 손상(Alterungsschäden)을 제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량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중고차량 판매자는 사고차량의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판매자가 이를 숨기거나 속였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면 차량을 반환할 수 있다. 사고차량인 것 같다는 의심이 생길 경우 차량상태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ADAC나 일반 정비소에 의뢰할 수 있다.

중고차 전문 매장을 이용할 경우 1년 개런티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방문 전 www.adac.de 또는 www.autoscout24.de와 같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중고차 유통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소비제품 판매법규(Vorschriften des Verbrauchsgüterkaufs)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인은 '중고차량의 매매에 있어서 물적 하자에 관한 책임(Sachmangelhaftung beim Gebrauchtwagenkauf)'을 회피할 수 없다. 중고차량 유통업은 이 법규가 규정하는 법적 개런티를 보장해야 하나, 동기간을 1년으로 단축 실행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도록 한다.

차량가격

독일은 자동차 가격이 비싼 편이라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하는 주재원들은 대부분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4~5년 된 중고 차량을 구입하며, 이 경우에도 차량에 따라 20,000~25,000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운전면허 취득

독일 체류 기간 중 운전면허는 독일에서 취득하는 방법,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일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를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총영사관, 대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Permit) 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를 방문하여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제시하고 약간의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에서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 것은 독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시(市) 또는 구(區)행정부(Gemeindeverwaltung)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운전면허 번역본의 번역인증을 받아 독일 운전면허 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번역인증을 위해서는

여권사본, 공증촉탁서 1부,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별지 서식 34호(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고, 소요기간은 당일 처리 원칙이다. 독일운전면허,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일로부터 약 3~4일 소요된다. 독일 면허관청(Fuehrerscheinstelle)을 방문하여, 여권 및 유효한 독일 체류허가, 거소신고서(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여권용 사진, 수수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독일 국내 운전면허 학원 수강 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 학원 비용은 한국에 비해 3~4배 정도 비싼 편(약 1,500~2,000유로)이고, 필기 및 주행시험도 한국보다 까다로운 편이며, 운전학원에 가서 의무적으로 이론 수업에도 참석해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Deutsche Bank(www.deutsche-bank.de): 독일 제1의 시중은행이지만 독일의 중앙은행은 아니다.

Commerzbank(www.commerzbank.de): 독일 제2의 시중은행으로 독일은행과 연맹관계로 ATM기수수료가 무료다.

그 밖에 독일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으로 외환은행(www.koexbank.de)과 신한은행(online.shinhan.de)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계좌를 개설할 때는 여권 및 거주지 등록증(Anmeldung)을 제출해야 한다. 계좌를 곧바로 개설할 수 없고 따로 은행 직원과 약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종이 통장이 없으며(예외, Sperrkonto), 계좌 개설 후 우편으로 한국의 체크카드 같은 EC 카드, EC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가 각각 2주 정도에 걸쳐서 따로따로 송부된다. 계좌 개설 시 소득수준에 따라 한국과 같이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도 가능하다. 독일에는 계좌 유지비가 있어서 월 5~8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될 경우 계좌 유지비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 30세 이하인 사람들은 계좌비가 없는 지로konto(Girokonto)를 개설할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FIS Frankfurt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8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수업이고 오후 5시까지 돌봄과정 및 특별활동이 이루어진다.
학비	18,860~23,380유로
홈페이지	https://www.fis.edu/index.cfm
비고	1961년에 설립되었고 1997년에 정식 인가되었다. 오버우어젤과 비스바덴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비스바덴은 한국의 초등학교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o ISF international school in the Frankfurt-Rhein-Main

도시명	Frankfurt am Main
-----	-------------------

커리큘럼	오전 8시20분부터 학년에 따라 수업은 오후 4시까지, 돌봄은 오후 6시까지 있다.
학비	12,450~19,875유로
홈페이지	https://www.isf.sabis.net/
비고	1995년에 설립되었고, 프랑크푸르트 서쪽 외관인 Sindlingen 구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 Strothoff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Dreieich
커리큘럼	오후돌봄이 있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나, 독일어 입문반이 운영된다.
학비	15,000~19,000유로
홈페이지	https://www.strothoff-international-school.com/
비고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 중간쯤인 Dreieich에 2009년에 개설된 학교로 교복을 착용한다.

○ European School Rhein-Main

도시명	Niederursel
커리큘럼	오전 8시30분부터 학년과 요일에 따라 대략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있다.
학비	9,600~12,000유로
홈페이지	https://www.es-rm.eu/index.php/de/
비고	2013년에 프랑크푸르트 니더우어젤(Niederursel)에 개설된 신설학교로 독일어 학교와 영어 학교로 나뉘어 있어 독일어 학부의 경우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기관 홈페이지〉

- 현지학교

○ Mendelssohn Bartholdy Schule

도시명	Bad Soden
커리큘럼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오전 7시30분부터 학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수업시간은 오전 7시45분에서 16시이다. 특별 활동에는 연주, 미술, 독서반, 화학, 합창, 밴드, 승마, 배구, 탁구, 연극 등이 있고 독일어 입문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http://www.mbs-mtk.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인근 Bad Soden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Heinrich von kleist

도시명	Eschborn
-----	----------

커리큘럼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수업시간은 오전 8시에서 13시 25분까지이며 방과 후에는 특별 활동(foerderkurs)을 할 수 있다. 특별활동 중에는 Kpop춤 따라하기 반이 있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 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https://www.kleist-schule.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인근 에쉬본에 위치해 있다. 8학년제로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 9학년제로 변경되었다.

○ Bettinaschul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9학년제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업이 있고, 제1외국어가 영어이고, 제2외국어로 불어, 라틴어, 스페인어가 있고, 제3외국어로 중국어가 있다. 음악중심 인문계 학교로 오케스트라반이 운영된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 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https://www.bettinaschule-frankfurt.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시내 Westend에 위치해 있고 괴테대학교 가깝다.

○ Goethe-Gymnasium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9학년제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이며, 오전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제1외국어는 영어이고 제 3외국어로 일본어가 있다. 오후 돌봄과정이 운영된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 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http://www.gg-ffm.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위치해 있고 인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김나지움 중에 하나이다. 문과계열에 집중해서 철학, 일본어, 불어, 라틴어, 러시아어 등을 다룬다.

○ IBMS International Bilingual Montessori Schoo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자율적인 교육으로 알려져 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 및 돌봄이 있다. 시험 대신에 담임의 관찰이 평가의 주를 이루며, 중고등과정을 일반 학교로 간다면 적응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창의력을 키우는 커리큘럼을 운영한다고 평가받는다.
학비	월 600유로
홈페이지	https://www.ibms-frankfurt.com/
비고	이탈리아 소아과의사인 안나 몬테소리의 교육이념을 따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과정의 사립학교이다. 1996년에 설립되었다.

○ Freie Waldorfschul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학생별 발달차이에 따른 교육을 추구하고, 담임이 8년간 지속되는 전통이 있다. 안전문제를 제외한 규율에서 자유롭기에 창의력을 키우는 커리큘럼이라고 평가받고, 일반 김나지움으로 진학시 적응문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학비	월 318유로, 두 아이가 같이 다니면 월 532유로(학생당 266유로)
홈페이지	https://waldorfschule-frankfurt.de/
비고	오스트리아 인지학자 발도르프의 이념을 따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사립학교이다. 독일에 약 250개의 발도르프 학교가 산재해 있다.

○ FCSF Freie Christliche Schul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오전 8시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을 한다. 기독교 예배가 필수다.
학비	월 225유로인데 둘째아이를 보낼 때는 110유로로 낮아진다(넷째 아이부터는 무료이다).
홈페이지	http://www.fcsf.de/
비고	1981년에 설립되었고 기독교 재단의 초등,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이다. 입학에 부모의 세례여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다.

○ Albert Einstein Schule

도시명	Schwallbach
커리큘럼	김나지움 과정으로 수업은 오전 7시55분에서 오후 13시15분까지이며 5,6학년의 경우 숙제를 하는 오후지도반에 가거나. 바로 특별 활동 등을 수행한다, 특별활동에는 미술, 음악, 춤, 연극, 언어 등이 있다.
학비	학비가 없다. 그러나 방과 후 과정, 식사비 등과 교재비 등을 부담해야 하며 특별활동을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요구된다.
홈페이지	http://www.aesmtk.de/cms/index.php
비고	Schwallbach 지역에 위치해 있다. 김나지움중에서도 이과 계열 중심 학교다.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마. 병원

○ Dr.김지현소아과

도시명	Liederbach am Taunus
주소	Eichkopfallee 55A, 65835 Liederbach am Taunus
전화번호	+49 (0) 6196 5255600

진료과목	소아과
------	-----

○ Dr.송지은 피부과

도시명	Bad Homburg
주소	Zeppelinstrasse 24, 61352 Bad Homburg
전화번호	+49 (0) 6172 98780
진료과목	피부과
비고	예약시 Dr. Song과 치료를 원한다면 미리 알려야 함

○ Dr 박정숙 치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elsterbacherstrasse 2a, 60528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79709
진료과목	치과

○ Dr.문영혜 내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rueneburgweg 12, 60322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5908410
진료과목	내과

○ Dr.이정훈 내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Nidacorso 1, 6043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571005
진료과목	내과

○ Dr.김송해 의사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Friedberger Landstrasse 47, 60316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59797470
진료과목	가정의학

○ Dr.김민아 치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asengasse 23, 60311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8 39 59
진료과목	치과
비고	예약시 Dr.Kim에게 진료를 받고 싶을 경우 사전에 이야기 할 것

○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Universitaetsklinikum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aus 1, Theodor-Stern-Kai 7, 60590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3 01 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현지 병원으로서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의 남쪽 강가지역에 위치

○ 엘리자베스 종합병원(St. Elisabethen Hospital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innheimer Strasse 3, 6048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939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현지병원으로서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을 기준으로 북쪽지역에 위치

○ Dr.김민성 치과

도시명	Hochheim
주소	Mainzer Strasse 7, 65239 Hochheim
전화번호	+49 (0) 6146 8160999
진료과목	치과
비고	어린이 및 청소년환자 전문, 여의사

○ Dipl. 신숙경 상담사

도시명	Mainz
주소	Eibenweg 36, 55128 Mainz

전화번호	+49 (0) 6131 364917
진료과목	심리상담

○ 도손 한의원(Dr. 윤국현 원장)

도시명	Oberursel
주소	Holzweg-Passage 2A, 61440 Oberursel
전화번호	+49 (0) 6171 9784412
진료과목	한의원

○ Dipl. 강동협 치료사

도시명	Schwalbach
주소	Ringstrasse 23, 65824 Schwalbach
전화번호	+49 (0) 152 0856 4280
진료과목	물리치료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MyZeil 자일 쇼핑센터

주소	An der Hauptwache, 6031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myzeil.de/
비고	구시가지 안에 있는 쇼핑센터로 특이한 외관으로 프랑크푸르트의 관광명소

○ Skyline Plaza 플라자 백화점

주소	Europa-Allee 6, 60327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skylineplaza.de/
비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쇼핑센터

○ Galeria Kaufhof 갤러리아 백화점

주소	Zeil 116-126, 6031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galeria-kaufhof.de/

비고	독일에 대도시마다 있는 백화점
----	------------------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쇼핑몰 홈페이지〉

- 식품점

○ Kims Laden 김씨 상회

도시명	Eschborn
주소	Bremer Strasse 2-6, 65760 Eschbor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에쉬본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가 큰 편

○ Green Mart 그린마트

도시명	Eschborn
주소	Rudolf-Diesel-Strasse 7, 65760 Eschbor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에쉬본에 위치

○ Asia Markt 한인 아시아마트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ohenstaufenstrasse 11, 60327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중앙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

○ Seoul-Lebensmittel 서울슈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reuznacher Strasse 50, 60486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중앙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

○ Taisan (태산)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Fahrgasse 95, 60311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구시가지 인근에 있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
----	------------------------

○ 한독마트

도시명	Oberursel (Taunus)
주소	Im Rosengaertchen 43, 61440 Oberursel (Taunus)
취급 식료품	식료품
비고	오버우어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편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 기타 편의시설

○ Sportschule Seou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In der Schildwacht 11, 6593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taekwondo-seoul-frankfurt.de
소개	태권도장

○ DSV-Jugend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Wilhelmshoeher Strasse 34, 6038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wasserfloeh.de/
소개	어린이 수영강습
비고	현지시설

○ SSF Schwimmschule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Rhoenstrasse 117, 60385 Frankfurt am Main (사무실)
홈페이지	http://www.schwimmschule-frankfurt.de/
소개	어른 수영강습
비고	현지시설, 강습장소는 홈페이지 참조

○ SPV

도시명	Frankfurt am Main
-----	-------------------

주소	Egenolffstrasse 40, 6031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2015.schwimmpaed.de
소개	어린이 수영강습
비고	현지시설, 강습장소는 홈페이지 참조하여 가까운 곳으로 고를 수 있음

○ Golf Range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Am Martinszehnten 6, 60437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golfrange-ffm.de/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 Frankfurter Golf Club e.V.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olfstrasse 41, 60528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fgc.de/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 뷰티 박

도시명	Kronberg
주소	Sodener Strasse 70, 61476 Kronberg
홈페이지	http://beautyparkhair.blogspot.com/
소개	헤어샵

○ 찰리 권

도시명	Oberursel
주소	hohemark Strasse 12, 61440 Oberursel
홈페이지	http://www.charlykwonhair.de/
소개	헤어샵

○ Offenbacher Golf-Club

도시명	Offenbach am Main
주소	Dreieichring 18, 63067 Offenbach am Main
홈페이지	https://offenbacher-golf.club/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Neujahr)	2019-01-01	독일 전역
주현절(Heilige Drei Koenige)	2019-01-06	대상 지역 : Baden-Wuerttemberg, Bayern, Sachsen-Anhalt
성금요일(Karfreitag)	2019-04-19	독일 전역
부활절(Ostern)	2019-04-22	독일 전역
노동절(Tag der Arbeit)	2019-05-01	독일 전역
예수승천일(Christi Himmelfahrt)	2019-05-30	독일 전역
성령강림절(Pfingsten)	2019-06-10	독일 전역
성축제일(Fronleichnam)	2019-06-20	대상 지역 : Baden-Wuerttemberg, Bayern, Hes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성모승천일(Maria Himmelfahrt)	2019-08-15	대상 지역 : Bayern, Saarland
통일기념일(Tag der Deutschen Einheit)	2019-10-03	독일 전역
종교개혁일(Reformationstag)	2019-10-31	대상 지역 : Brandenburg, Bremen, Hamburg, Mecklenburg-Vorpommern, Niedersachsen, Sachsen, Sachsen-Anhalt, Thuringen
만성절(Allerheiligen)	2019-11-01	대상 지역 : Baden-Wuerttemberg, Bayer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속죄의 날(Buss- und Betttag)	2018-11-20	대상 지역 : Sachsen
성탄절(Weihnachten)	2018-12-25	독일 전역, 26일까지 2일간

<자료원 : Ferienkalender und Feiertage 2019>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Messeturm, 33. OG, Friedrich-Ebert 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 전화번호 : +49 (0)69 242 9920
- 이메일 : frankfurt@kotra.or.kr
- 홈페이지 : www.kotra.or.kr/frankfurt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지하철 : 공항에서 지역 철도 S Bahn을 Regional-Bahnhof에서 승차- Frankfurt 중앙역에서 하차(Frankfurt Hbf)-지하철 (U Bahn: 보켄하이머 바르트 행 4번; Bockenheimer Warte U4)을 중앙역 지하에서 타거나, 중앙역 앞 큰길 건너편에서 지상전철(S Bahn : 메세 방면 16번이나 17번; Messe S16, S17)로 갈아타기-페스트할레/메세역 하차(Festhalle/Messe). 요금은 성인요금 기준 (만15세 이상 적용) 공항에서 메세까지 4.90 유로. 어린이(만6-14세) 2.85유로, 6세 미만 무료이다.
 - 버스 : 시내까지 한 번에 오는 버스노선은 없다.
 - 택시 : 공항에서 메세까지 약 35유로, 짐칸에 짐을 실으면 할증될 수 있고 성인이 아닌 경우 카시트는 탑승객이 휴대해야 한다.
- 건물 도착 후
 -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하게 해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함부르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Axel-Springer-Platz 3, Haus B, 20355 Hamburg, Germany
- 전화번호 : +49 (0)40 3405-740
- 이메일 : info@kotra.de
- 홈페이지 : www.kotra.or.kr/hamburg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 무역관 주소(Axel-Springer-Platz 3)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면 도착 가능. (약 25분 소요)
- 대중 교통:
 - (전철) S1 Stadthausbrücke 역 혹은 U3 Rdingsmarkt 역 하차, 도보 5분 거리 위치
 - (버스) 중앙역 HBF/MnckebergstraBe 역에서 버스 3번 탑승, Axel-Springer-Platz 역에서 하차
- 참고사항
 - KOTRA 독일 함부르크 무역관은 Hanse Forum 빌딩 B동, 2층에 입주해 있음.

뮌헨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Tal 12, D-80331 Muenchen, Germany
- 전화번호 : +49 (0)89 2424-2630
- 이메일 : munich@kotra.or.kr
- 홈페이지 : www.kotra.or.kr/munich

공항-무역관 이동

- 지하철 이용 시
 - 뮌헨공항 역에서 전철(S 1번 혹은 S 8번)을 타고 Marienplatz역에서 하차해 Viktualienmarkt, Tal 또는 Sparkassenstr. 방향의 출구로 이동
 - 구시청 Altes Rathaus/Old Town Hall (참고 : 광장 왼쪽의 검은색 석회석 건물이 신시청, 구시청은 출구에서 11시 방향 밝은 건물임)을 왼편에 끼고 그 길을 70~80미터 직진하여 내려오면 오른편에 맥도날드(Mcdonald) 옆 파울라우너(Paulaner im Tal) 건물 1층에 뮌헨 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 Munchen)을 발견할 수 있음.
- 공항버스 이용시
 - 공항 터미널 1 또는 2에 있는 공항버스 승강장에서 1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공항버스(Lufthansa Air Bus)를 타고 중앙역(Munich Central Station 영어/Munchen Hauptbahnhof독일어)까지 온 후 전철(S-Bahn) 또는 택시를 이용 추천(요금: 공항에서 중앙역까지 편도 10,50유로)
- 택시 이용시
 - 공항, 중앙역(Hauptbahnhof) 등 택시 승강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탑승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야 함(Call Taxi 전화번호: 21610).
 - 택시 탑승 후 뮌헨무역관 주소를 택시운전사에게 제시하면 바로 뮌헨무역관 앞까지 올 수 있음.
 - 요금: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60유로, 중앙역에서 뮌헨무역관까지는 약 10유로 정도임.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